

# 참여와 소통의 평화·통일교육 방안 모색

김정수

## 목 차

- |                |                     |
|----------------|---------------------|
| I. 여는 글        | III. 평화·통일교육의 방안 제시 |
| II. 평화담론과 교육사례 | IV. 맺는 글            |

[국문요약] 본 연구는 평화·통일 교육의 ‘이론’이나 ‘당위’가 아닌 구체적 ‘교육방안’의 모색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해 연극을 활용해보고자 한다. 현장 교육자의 ‘개념이나 이론 강의가 아닌’, 교육생이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는’, 교육생뿐 아니라 ‘교육자도 흥미로운’, 교육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 요구를 수용하고자 함이다. 본 연구는 먼저, ‘남한에 정착해 생활할 때 겪는 가장 큰 어려움’과 어떤 내용이면 ‘하고 싶은 말 마음껏 하기’로 북한 이탈주민과 심층 대화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북한 이탈주민의 말을 판단하거나 중지시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모든 인터뷰 내용을 기록하였으며, 이를 주제별로 다시 재분류하였다. 만약 교육자가 인터뷰를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북한 이탈주민의 생활이 담겨있는 글을 참고할 수 있다. 다음 단계에서는 재분류한 인터뷰 내용을 토대로 연극대본을 창작하였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인터뷰의 내용을 극적 갈등으로 엮어가는 것이다. 연극은 갈등의 예술이기 때문에 갈등 없이 극은 완

성될 수 없기 때문이다. 교육자가 연극대본 창작에 지나친 부담을 느낄 필요는 없다. 본문에서 제시했듯이 하나의 인터뷰만으로도 교육을 위한 대본창작은 충분히 가능하다. 다만 주의할 것은 지나치게 침예한 갈등을 설정하지 않는 것이다. 지나치게 날카로운 갈등은 교육의 효과를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창작으로 경험을 쌓는다면, 평화·통일 교육에서 ‘경제적 유익’과 같이 다소 지루할 수 있는 과목을 연극으로 구성해보는 것을 제안한다. 이때에도 개연성 있는 갈등은 필수적이며 경제적 유익을 배우의 대사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같은 연극대본을 초등학교에서부터 대학교, 즉 학교통일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이 조별로 나누어 연습하고 공연한다면, 그 과정에서 학생들 스스로 변할 수 있으며, 그 자체가 참여와 소통의 평화·통일교육이 될 수 있다.

**\* 주제어:** 평화·통일교육 방안, 교육연극, 북한 이탈주민, 참여와 소통

## I. 여는 글

오늘날 평화·통일교육의 중요성은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남북 예술단의 방문공연, 비무장 지대의 남북 GP해체 등 한반도의 변화는 새로운 의식의 패러다임을 요구한다. 통일의 주역이 될 차세대와 그들과 관계 맺는 기성세대 모두에게 ‘평화·통일’은 적극적 이해와 실천으로 횡단할 시점인 것이다. 그런데 평화와 통일에 관한 적극적 이해와 실천에서 중요한 것은 제도뿐 아니라 ‘사람’이라 할 수 있다. 1민족, 1국가, 1체제, 1정부가 헌법이 규정하는 통일이라면, 통일로 가는 과정 역시 넓은 의미에서의 통일이며, 통일로 가는 과정에서 타자와의 만남은 필연이기 때문이다.

타자와의 만남에서 중요한 것은 자신의 정체성 주장이 아니라, 타자의 관점을 이해하며, 소통하는 태도이다. 물론 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한 연구는 상당히 진행되어 왔다.<sup>1)</sup> 평화를 위한 문화예술 교과목 개발, 남북의 비판적 역사교육, 북한 이탈주민 이해교육, 문화시민 역량교육, 공동선을 모색하는 윤리 교육, 타자 존중의 교육 등의 연구가 실례가 될 것이다. 이들 연구는 공통적으로 갈등해결 능력, 공존 능력, 이해 능력, 수용 능력을 강조하는데, 이러한 선행 연구는 평화·통일 교육의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모두 귀중한 성과물이다.

그렇다면 이제는 보다 구체적인 방안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대부분 단편적으로 진행되는 학교통일교육과 일반인 통일교육에서 타자를 이해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능력을 어떻게 교육할 수 있을까? 공동선을 모색하며 상대를 존중하는 능력은 제한된 교육 시간 속에서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 이 질문이 본 연구의 출발점이다.

본 연구는 평화·통일 교육에 있어서 ‘개념이나 이론 강의가 아닌’, 교육생이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는’, 교육생뿐 아니라 ‘교육자도 흥미로운’, 교육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 요구를 수용하고자 한다. 교육현장의 교사와 강사의 필요는 발전적 평화·통일 교육을 위해 반드시 존중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평화·통일 교육의 ‘이론’이나 ‘당위’가 아닌 구체적 ‘교육 방안’의 모색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해 연극을 활용해보고자 한다. 연극은 영화와 달리 퍼포머(performer, actor)와 교육생이 동일한 시·공간 속에 존재하며 함께 완성해가는 독특한 특징이 있다. 연극은 ‘모든 학습자에게 다른 참가자들로부터 듣고, 보고, 상호작용하는 학습 기회를 제공한다.’<sup>2)</sup> 교육생은 연극을 보고 참여함으로써 “마치 ~인 것처럼(as if)” 생각하여, 일어난 일을 두 가지 관점에서 가능성을 보며, 두 생각 사이의 관계를 보고, 두 생각 사이의 역동적인 힘을 본다.<sup>3)</sup> 최근 직장교육에서 연

1) 김민수·이정은·김미혜, “통일과 평화를 위한 문화예술 교과목 <북한의 일상과 문화예술> 개발 연구,” 『통일과 평화』, 제9집 2호 (2017); 윤철기, “한반도의 평화문제와 통일교육의 새로운 방향의 모색,” 『정치정보연구』, 제20호 (2017); 이기범, “다원화시대의 공동선 모색을 위한 평화교육과 덕윤리,” 『다문화사회연구』 제10집 2호 (2017); 박보영, “평화교육의 이론과 과제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학과 박사학위논문, 2006).

2) Suwan El-Shamy 저, 이호선 역, 『쉽게 배우는 역할극』 (서울: 학지사, 2009), p. 29.

극을 활용한 교육이 활발한 것은 연극이 ‘참여’와 ‘소통’을 어떤 장르보다 가능하게 하며, 모든 교육 활동의 근원이라 할 수 있는 창의력, 이성, 감성을 자극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10개월의 연구기간을 계획하여, 먼저 북한 이탈주민과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북한 이탈주민이 일상에서 겪는 미묘한 고충을 듣고,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연극대본을 창작하고, 교사가 진행해야 할 교육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가 장기간의 연구기간을 설정하고, 배우와의 연습을 거듭하며 평화·통일 교육을 위한 연극대본을 창작한다고 해도, 연구의 특성상 ‘방안 모색’은 ‘이론적 연구’에 비해 소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가 제시하는 방안은 평화·통일 교육의 수많은 방법 중 하나일 뿐이다. 그러나 새로운 방법임은 분명하기에 본 연구의 소박함이 능력 있는 후속 연구자와 현장 교육자들에 의해 보완·수정될 것을 기대하며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 II. 평화담론과 교육사례

### 1. 타자의 얼굴<sup>4)</sup>

본 연구의 철학적 기반은 레비나스의 ‘타인의 얼굴’이다.<sup>5)</sup> 서구의 근대적 이성인 존재론은 세계의 근본을 통일적 원리로 파악해내려는 시도이다. 그렇기 때문에 존재론을 앞세우는 철학은 지배를 지향하는 자기중심적 특성을 벗어날 수 없다. 이에 레비나스는 이전까지의 모든 존재론을 물리치고 존재론 아닌 윤리를 제1철학으로 내세운다.

레비나스 철학이 지니는 강점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과 새로운 변화의 방향을 일깨운다는 데 있다. 그에 따르면 윤리란 타자와의 관계에서 성립되는 것인데, 타자와의 관계는 모든 이해나 해석에 우선한다. 우리의 삶은 어떤 인식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타자와 관계하는 데서 비롯된다는 의미이다. 내가, 나의 자유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타자와 맺는 관계가 먼저다. 동일자의 질서를 벗어나고 넘어서는 타자의 영역, 곧 외재성과 초월성이 우선인 셈이다. 타자보다 동일자를 앞세우고 동일자의 틀을 타자에게 덮어씌워 타자를 지배하려는 시도는 궁극적으로 성취 불가능한 일이며 잘못된 일이다.

레비나스에 따르면 타자는 또 하나의 나와 같은 것일 수 없다. 타자는 ‘다른’자이지 ‘같은’ 자가 아니다. 타자는 내게 익숙한 틀과 파악 방식을 벗어나 있으며 그래서 낯설고 연약하고 험박은 자들로 이방인, 고아, 가난한 자, 병든 자 등이다. 이들은

3) 리처드 코트니, 김주연·오판진 역, 『교육연극 입문』 (서울: 연극과 인간, 2014), p. 21.

4) 본 장은 문성원, 『타자와 욕망』, (서울: 현암사, 2018)의 내용을 요약하였음.

5) 문성원 지음, 『타자와 욕망』, (서울: 현암사, 2018); 자크 데리다, 『환대에 대하여』 (서울: 동문선 현대신서, 2004); 콜린 데이비스, 주완식 옮김, 『처음 읽는 레비나스』, (서울: 동녘, 2014); 알랭 펠렝크로트, 『사랑의 지혜』 (서울: 동문선 현대신서 14, 1998) 참조.

내가 가진 것들의 밖에서 내게 호소하고 명령한다. 이 호소와 명령은 지배나 강제가 아니지만 우리는 이 호소와 명령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이 ‘외면할 수 없음’이 책임이고 윤리다. 바로 이 지점에서 ‘환대’가 부각된다. 우리의 안정과 안락을 위해 친 테두리들이 배타적인 것으로 공고해질 때 동일자의 폭력은 일반적인 것이 된다. 환대는 이런 폐쇄성을 열어젖히고 타자를 내 집에 맞아들이는 행위다. 레비나스가 내세우는 환대는 아무런 권리나 보상을 전제하지 않는다. 그것은 무조건적 환대다. 타자가 이방인이고 혈벗은 자이기에 그 호소에 응당하여 타자를 환대할 따름이다.

물론 타자와의 관계에 주목한다고 해서 삶의 문제와 어려움이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타자와의 관계는 완결적일 수 없는 관계다. 오히려 타자에 응답하고 책임을 다하면 다할수록 그 책임이 더 커져간다는 것이 이 관계의 특징이다. 레비나스에 따르면, 이런 점을 받아들이는 것이 자기중심적이고 폭력적인 오늘의 문명을 개선해나갈 수 있는 길이다. 레비나스의 『전체성과 무한』의 「서문」에는 우리가 진정으로 전쟁을 극복하고 참된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하는 중요한 문제가 다루어진다.

탈은폐된 것의 즉자와 대자 너머에 인간의 벌거벗음이 있다. 세계의-풍경들의, 사물들의, 제도들의-외부보다 더 외재적인 벌거벗음, 세계에 대한 자신의 낯섬을 외치는 벌거벗음, 그의 고독을, 그의 존재에 숨겨진 죽음을 외치는 벌거벗음, 그 벌거벗음은 스스로를 드러내면서, 감춰진 자신의 비참이 지닌 부끄러움을 절규한다. 그것은 영혼에서의 죽음을 절규한다. 이 인간의 벌거벗음은 나를 호명한다. 그것은 나인 그대로의 나를 부른다. 그것은 아무런 보호도 방어도 없이 자신의 약함으로부터, 벌거벗음으로부터 내게 말을 건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낯선 권위로부터 나를 부른다. 명령적이지만 아무런 무기도 갖지 않은 권위로부터, 신의 말과 인간의 얼굴에 나타난 말씀으로부터. 얼굴은 낱말들에 앞서 이미 언어다. 세계의 고유명사와 명칭과 영역들을 통해 부여되거나 뒷받침되는 내용을 벗겨낸, 인간 얼굴의 원래 언어, 이미 요구하고, 이미(바로 그런 것으로서) 비참인, 존재의 즉자 면에서 이미 거지인 원래의 언어, 그러나 이미 명령적인 언어, 죽을 수밖에 없는 자로부터, 이웃으로부터, 나의 고유한 죽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한 성스러움의 메시지에, 회생의 메시지에 답하게 하는 명령적인 원래 언어, 가치와 선의 근원이자, 인간에게 주어진 명령 가운데 자리 잡은 인간적 명령의 이념, 들을 수 없는 언어, 전대미문의 언어, 말해지지-않은 언어, 성서Ecriture!

이 글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레비나스는 타인을 살해하고 타인에게 고통을 가했던 20세기의 비극적 상황, 거기에 대해 당시까지의 철학이 무력하고 무책임했던 이유를 인간의 비참함에 대한, 인간의 얼굴에 대한 외면이 있었다고 주장한다는 점이다. 레비나스가 볼 때, 얼굴의 호소와 그에 대한 응답은, 그 절박함과 중요성 면에서, 존재에 대한 어떠한 이해에도 앞서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타인의 호소에 응답하고 낯선 자를 환대할 수 있을까? 더욱이 타자와의 윤리적 관계 속에서 어떻게 무한한 책임을 질 수 있을까? 레비나스

는 전쟁의 잠정적 중지가 아닌 참된 평화가 가능하며, 그것은 우리를 속이지 않는 무조건적이고 보편적인 도덕에 의해 이룩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타자를 우위에 두는 윤리 또는 도덕 이외에는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길이 없다. 이제까지의 문명을 뛰어 넘는 새로운 차원의 삶이 자리를 잡아야 한다. 전근대적 욕망관이 신분적 위계 같은 불평등한 틀에 욕망을 가둔 채 짐짓 절제를 내세우는 것이었다면, 근대적 욕망관은 상품 교환의 틀 속에 욕망을 놓고 수요-공급의 쌍처럼 결핍과 충족을 연결시켜 이해하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특권적이고 내밀한 욕망의 추구는 전근대적 양태고, 욕망에 대한 노골적인 긍정은 근대적 양태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제는 욕망의 혁명, 의식의 혁명이 필요하다.

우리는 완전하게 이해하지는 못해도 완전하게 사랑할 수는 있습니다.

(영화 <흐르는 강물처럼>, 1992)

오늘날에는 근대화 이데올로기를 극복하고 더 나아가 근대를 극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타자를 향한 초월적 욕망, 형이상학적 욕망이 중요하다. 이 욕망은 우리가 놓인 세상 안이 아니라 밖을 향한다. 욕망의 혁명이란 차라리 이렇게 방향을 완전히 전환하는데서 찾아 질 수 있지 않을까? 레비나스가 말하는 형이상학적 욕망은 세상에 대한 초월적 무관심이 아니라 이해관계에 찌든 욕망을 넘어서는 ‘탈이해관계’(desinterressement)로서의 ‘무관심하지 않음’(non-indifference)이다. 우리가 알고 가진 것이 그 바깥의 무한과 닿아 있음을 깨닫고 그 ‘타자성과 외재성에 귀를 기울이는 욕망’이 필요하다. 이것이 진정한(par excellence) 욕망의 혁명이다. 언제나 내 뜻에 복종하게끔 짜인 인간관계 속에서 느낄 수 있는 즐거움은 제한적이고 부분적인 것에 그친다. 나와 다르고 그래서 나와 어긋날 수 있는 타인이 나와 잘 어우러질 때, 우리는 진정 즐겁지 않은가. 또한 그 어울림이 내 노력을 통해, 그러나 나의 제어 범위를 넘어서 이루어질 때 그 즐거움은 한층 커지고 강렬해지지 않는가.

## 2. 평화교육의 사례6)

해외 평화교육의 대표적 사례는 이스라엘, 북아일랜드, 미국, 독일을 들 수 있다. 이 국가들의 갈등과 분쟁은 각기 다르다. 북아일랜드의 카톨릭과 개신교의 갈등은 사회경제적, 문화적 불평등과 분리가 특징이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각기 다른 인종과 종교를 바탕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불평등과 심각한 무력분쟁이 진행되고 있다. 독일은 통일을 이루어내었지만 현재 경제, 사회, 문화적 통합의 과제를 여전히 안고 있다. 미국 역시 다양한 차원의 갈등과 폭력으로 인해 사회통합

6) 해외 평화교육의 사례는 통일연구원, “갈등해결 능력과 통일교육의 만남.” 『통일교육 콘텐츠 개발Ⅳ(2)』 (서울: 통일연구원, 2014) pp. 177-184를 요약하였음.

의 과제가 필요한 국가이다.

## 가. 미국의 사례

미국에서는 1960년대 평화운동이 확산되면서 갈등해결 교육 프로그램이 학교 현장으로 편입되기 시작했다. 또래조정 프로그램은 대부분 지역사회 조정서비스의 일환으로 지속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

표 3 미국의 평화교육: 갈등해결 프로그램

구분	목적	주요 프로그램
학교갈등 해결 프 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화를 가능하게 하는 교실’ 만들기를 통해 폭력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교실, 특히 교실에서 분출되는 갈등의 평화적·건설적 해결.</li> <li>- 갈등을 폭력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갈등을 통해서 ‘다름’을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방법을 배움.</li> <li>- 폭력적 갈등 당사자들이 모두 평화적 갈등해결자가 될 수 있도록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사소통, 분노 조절, 편견과 적대감 줄이기, 갈등 분석, 협동, 중재, 협상 등의 기술을 배우고 이를 통해 자아존중감 향상, 타인에 대한 인정과 관용을 위한 가치와 태도 습득.</li> </ul>
HIPP <sup>7)</s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로 지역에서 청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학교와 사회에서 폭력과 불관용을 줄이고 다양한 인종과 문화를 넘나들 수 있는 이해력을 강화시키고 갈등해결과 동시에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갈등과 폭력을 유발하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에 대해 청소년들이 올바른 관점을 형성하고 대안 모색을 위해 다양한 워크숍을 진행함.</li> <li>- 역할극, 자기긍정향상, 감수성, 폭력과 편견에 대한 진지한 대화, 원·원으로 이끄는 활동과 협동·의사소통을 복돋우는 게임 등.</li> </ul>

미국사례의 시사점은 갈등의 평화적 해결, 갈등 당사자들의 갈등 해결자로의 전환, 타자에 대한 이해력 증진, 역할극의 활용이라 하겠다.

## 나. 이스라엘-아랍평화센터의 ‘대면 프로그램’과 공존훈련

이스라엘-아랍평화센터에서는 유대-아랍인 참석자들(청소년들이 가장 중요한 참석자임)이 동수로 참석하여 두 언어를 사용하며 유대-아랍인 전문 진행자에 의해 진행되는 집단 감수성 훈련과 공존훈련을 진행한다.

7) 평화를 증진시키도록 돕는 프로그램(Help Increase Peace Program). 대표적인 평화운동 단체인 미국 친우봉사회(AFSC)에서 실시함.

표 4 이스라엘-아랍의 갈등해결 프로그램

구분	목적	주요 프로그램
대면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갈등과 그 안에서 자신들의 역할을 인식하도록 도와주고,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탐색하고 발전시키도록 하는 것.</li> <li>- 즉 참여자들이 현실을 이해할 수 있는 정보에 기초하여 갈등에 대한 자신들의 의견을 보다 구체화할 수 있도록 돕는 것.</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정한 한 나라의 문화적 특성에 속하지 않는 프로그램.</li> <li>- 청년대면프로그램, 대면프로그램 졸업생 대표들의 해외여름캠프, 청년공동체에서의 장기간 집단감수성 프로그램, 청년지도자의 대면과 학생위원회 활동, 기타 성인 프로그램, 팔레스타인-유대인 프로그램, 대학과정, 전문진행자 훈련과정, 여성교육, 카운슬링과 훈련</li> </ul>

이스라엘-아랍평화센터의 시사점은 갈등 당사자들의 참여를 전제로 한다는 점이다. 어느 한쪽이 한쪽을 일방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닌, 양쪽 모두의 이해를 중요시 하는 점, 성인·청소년 모두를 대상으로 한 ‘감수성’ 훈련을 주목할 수 있다.

#### 다. 북아일랜드의 상호이해교육

북아일랜드는 두 종교적 정체성만이 대립하던 분단구조에서 다문화사회로 이행함에 따라 다원화된 사회문제를 비폭력적이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평화적인 실생활 문제해결 능력을 키우는 것을 가장 시급한 평화교육 과제로 삼는다.

표 5 북아일랜드 상호이해교육

구분	목적	주요 프로그램
상호이해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용, 공평, 상호존중의 정신에서 ‘다름’과 더불어 사는 것을 배우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4개의 목표에 의해 구체화됨.</li> <li>① 자기와 타인에 대한 존중과 관계형성 촉진</li> <li>② 갈등의 이해와 창의적 해결</li> <li>③ 상호의존성에 대한 자각</li> <li>④ 문화적 다양성 이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교교육에서 단일종교만 가르쳤던 기존 방식에서 다양한 종교를 이해하는 방식으로 바뀌었고, 아일랜드어를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아일랜드 역사도 배우게 되었음.</li> <li>- 지리나 법률에서도 북아일랜드의 특수성을 구체적으로 다룸.</li> <li>- ‘적극적 학습’을 통해 현장견학이나 구체적인 실습을 경험해봄으로써 북아일랜드의 현실을 이해하고 주인의식을 갖게 됨.</li> </ul>

북아일랜드의 시사점은 타인을 존중하며 갈등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창의적 해결

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이며, 특히 ‘적극적 학습’을 통해 교육생이 구체적으로 북아일랜드의 현실을 경험해보게 한다는 것이다.

## 라. 독일의 평화교육

독일에서는 냉전이 끝나고 가정, 직장, 사회 등 다양한 차원에서 일어나는 일상적 폭력들이 평화교육의 핵심 주제가 되었다. 동서독의 경제적 차이뿐 아니라 가치관의 차이와 문화적·생활적 차이에 대해서 합의점을 찾아야 했던 것이다. 통일 이후 독일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통일교육을 실시해왔지만 통일교육이라 명명하지 않고 정치교육, 평화교육, 독일 민족화합 교육이라는 세 가지 큰 틀에서 간접적 통일교육을 진행해왔다.

표 6 독일 평화교육

구분	내용
학교에서의 평화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핵심내용: 비폭력 행위능력 신장, 공격성 억제 교육, 갈등중재훈련</li> <li>- 주요프로그램: 사회적 훈련, 반공격성 훈련, 사회적 학습 프로그램, 갈등 훈련, 중재 프로그램, 가해자-피해자 균형잡기, ‘생활속의 학교’ 프로젝트, 인종주의 없는 학교, 학교 내 계속교육 프로그램, 폭력예방, 다양성의 세계</li> </ul>
정치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서독 출신의 학생들이 함께 만나 같은 공간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실시</li> <li>- 연령, 직업, 이념에 상관없이 동독출신 5명, 서독 출신 5명을 선발하여 그들의 삶의 이야기를 나누고 독일의 내적 통일을 방해하는 서로에 대한 편견을 제거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음.</li> <li>- 규칙은 첫째, 참가자들은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고 일정 시간 동안 자신의 이야기를 하며, 이야기를 하는 사람 이외에 모든 사람들은 함께 경청하고 공감하는 것이며 둘째, 가장 중요한 규칙은 ‘상대방의 삶을 평가하지 않는 것’</li> </ul>

독일 평화교육의 시사점은 갈등중재와 ‘생활 속’의 평화를 목적으로 참가자들이 어떤 방해없이 일정시간동안 자신의 이야기를 하도록 하며, 서로에 대한 편견을 제거하여 상대에 대한 평가를 경계한다는 것이다.

## III. 평화·통일교육의 방안 제시

본 장은 II장에서 다룬 레비나스의 철학과 미국, 이스라엘-아랍, 북아일랜드, 독일 평화교육의 시사점을 기억하며 진행하기로 한다. II장 ‘평화교육의 사례’에서의 시사점을 요약하면 갈등 당사자들의 갈등해결자로의 전환, 갈등 당사자들 양쪽 모

두의 이해와 감수성 훈련, 체험을 통한 적극적 해결 능력, 생활 밀착형 평화교육, 서로에 대한 편견 제거 등이다.

## 1. ‘나’를 말하기

‘나’를 말하기에서는 ‘이스라엘-아랍’ 평화교육과 같이 북한 이탈주민의 말을 듣기로 한다. 본 연구는 5명의 북한 이탈주민이 ‘남한에 정착해 생활할 때 겪는 가장 큰 어려움’과 어떤 내용이든 ‘하고 싶은 말 마음껏 하기’로 시작했다. 이 2가지를 제외하고는 특별한 주제를 제시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는 1:1 심층 인터뷰가 필요하다. 심층으로 접근할 때 신뢰감이 쌓여 북한 이탈주민은 사건 뿐 아니라 감정까지 표현할 수 있다. 물론 본 연구의 인터뷰 대상이 북한 이탈주민을 대변한다고 할 수 없다. 거듭 강조하지만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 이탈주민의 고충을 이해하기 보다는 ‘연극을 활용한 평화·통일 교육의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다.<sup>8)</sup> 인터뷰 과정에서는 다양한 내용이 자유롭게 쏟아져 나왔으며, 다음의 분류는 북한 이탈주민과의 인터뷰 내용을 모두 종합하여 소재별로 재분류한 것이다. 이 분류가 연극대본의 기초가 되므로, 질적 연구방법을 따라 구어체로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다. 레비나스의 통찰과 같이 우리는 언어만큼이나 표정, 음색, 음조로 자신을 표현하기 때문이다.<sup>9)</sup>

### 가. 불공정한 대우

① 내가 여기 와서 통일교육 관련해서 강사를 하잖아. 내가 여러 곳에 홍보가 된거야. 그때 내가 북한 사람이니까 잘 해야 한다, 내가 잘못하면 ‘북한 사람이라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할까봐 내 자체의 의식이라고나 할까? 그래서 열심히 하는데, 그런데 어떤 데서는 나한테 강사비를 얼마를 주면 좋겠냐고 물어보는 거야. 나는 그럴 때 차별이라고 느꼈거든. 그걸 내가 정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 이 사람이 내가 탈북자라고 물어보나 싶기도 하고. 아니 한국 사람을 초대했어도 강사비 얼마주면 되냐고 물어볼까 싶은 거야. 내가 잘 모르겠다고 하고, 전화 끊고 나니까 너무 기분이 나빠. 강사를 초빙하는 사람이 시간당 얼마라는 그런 규정도 모르나? 지금까지 그런 어떻게 했어? 왜 나한테만 물어?

② 내가 여기 와서 처음 정착할 때 돈을 벌어야 하니까 김밥 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어. 그런데 내가 그때 월급을 60만원 받았거든. 내가 아이가 있어서, 9시부터 5시까지 그때 나 참 열심히 일했어. 아침 일찍 1시간이나 30분 일찍 가서 시키지도 않았지만 화장실 청소부터, 내가 그렇게 했는데, 나보다 한 달 늦게 들어온 조선족 애가 있는데, 80만원 받았어. 똑 같은 시간을 일하는데... 사장 말로는 개가 나보다

8) 연극대본으로 활용하기 위해 인터뷰 내용에 편의상 숫자를 붙이기로 한다.

9) 본 연구에서는 이탈주민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기로 한다. 본 인터뷰는 북한에서가 아니라 남한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하므로 기본적인 인적사항만으로도 신분이 쉽게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다.

경력이 있다는 거야. 그런데 그것도 아니었어. 나랑 똑 같은 홀 서빙이야. 탈북자를 조선족보다 못하게 취급하는 거야. 자존심이 확 상하더라고. 난 탈북자니까 열심히 하는걸로 인정받으려고, 화장실도 청소하고 그랬는데.. 참..

③ 내가 회사에서 잠깐 일을 할 때가 있었어. 그런데 내 고향 선배가 갑자기 죽은 거야. 그 사람이 강원도로 가다가 교통사고로 죽은 거야. 한국에 와서 6개월도 안 돼서 죽은 거야. 내가 회사에 1일 쉬는 거, 연가를 신청했는데, 사장이 못 놀게 하더라고. 그때 내가 느낀게 아, 탈북자라고 차별하는구나 싶더라. 연가가 있잖아. 그걸 쓰겠다고 했는데.. 내가 입관해줘야 하는데, 사장이 그걸 안해주는 거야. 그날 못간 게 난 계속 후회돼. 아들이 있거든. 지금도 개를 보면 미안하고 죄책감이 있어. 날 이모로 생각했는데. 나 이걸 차별을 느꼈어. 사장이라는 사람이 북한에 대해 안 좋은 생각이 있는 건지.. 그런데 2003년도에 탈북자 모아놓고 교육을 시킨 적이 있었어. 그때 탈북자가 차별받는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난 아무 말도 못했어. 그런데 거기서 한 탈북한 남자가 주유소에서 일했는데, 자기도 후에 들어온 한국 사람보다 월급이 작았데. 그때 내가 위로가 되더라.. 나만 그런게 아니구나.. 안 보이는 차별이 이 사회에 있어.

④ 우리 나라에 탈북민 관련 사단법인 어찌구 그런 곳이 정말 많거든요. 그 단체들이 탈북민한테 지원을 해줘요. 그런데 대표가 어느 날 절 부르더라구요. 갔더니 빵하고 우유를 줬어요. 알단 감사했죠. 받아들고 집에 와서 보니까.. 저 지금도 화나요. 그 빵하고 우유 유통기한이 지난거였어요. 저요, 울면서 그거 다 버렸어요. 제가 쓰레기통이에요? 저 유통기한에 노이로제 걸렸어요. 그거 뿐이 아니라 옷도 그래요. 버릴 옷을 입으라고 주더라구요.

⑤ 제가요, 대한민국의 지원 안받고 제 힘으로 살려고 돈 벌려고 했어요. 이런 적이 있었어요. 저 여기서 초등학교 영어 과외 수업했거든요. 수입이 짭짤했어요. 엄마들도 저 많이 좋아했고, 저도 참 열심히 가르쳤어요. 돈도 돈이지만, 혼자 있으니 아이들을 만나면 좋았고, 아이들이 이뻐서요. 그런데 아이들 엄마중에 한 분이 제가 북한에서 온 줄을 어떻게 알게 된 거예요. 저한테 북한에서 왔는데 참 똑똑하다 이러면서 칭찬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했죠. 그런데 그 다음날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애들을 안보내더라고요, 참... 탈북민한테 영어배우기 싫은거죠..

⑥ 저를 통일교육 강사로 가끔 부를때가 있어요. 지방이나 이런데서 단체의 총무님이 연락을 하시는데요. 제가 수업들을 때에는 핸드폰을 무음으로 해 놓거든요. 그런데 쉬는 시간에 핸드폰을 확인하니까 그 단체의 총무님이 5번을 전화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급한 일인가 싶어서 제가 전화를 하니까, 다짜고짜 소리 소리 지르면서 “너 왜 전화 안받아?!”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한번쯤 제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먼

저 물어볼 수 있는거잖아요.. 너무 저도 황당했는데, 그냥 “총무님, 제가 수업중이라서 핸드폰을 무음으로 했어요. 죄송합니다.” 그랬어요.. 제가 항상 대기하면서 전화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다짜고짜 소리부터 지르면... 물론 그 분이 소개시켜 주셔서 제가 돈을 벌기는 하지만.. 그럴 땐, 저녁까지 기분이.. 그런 일을 겪고 나면, 여기서 어떻게 살아갈지 자신이 없어져요.

⑦ 직장에서 승진은 참 힘들어. 내가 일하는데에 남한 출신 팀장이 있었는데, 너무 능력이 없어. 관련 조레고 뭐고, 아는게 없어. 문제가 일어나면 해결할 생각이 없어.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게 아니야. 다들 그 사람을 그렇게 생각했어. 그런데도 승진이 되는거야. 능력 있어도 탈북자는 승진이 안 돼. 그리고 연봉 계약서를 쓰는데, 어떨 때는 연봉 액수가 없어. 그게 말이 되니? 황당하지. 뭐라고 말하면, 또 탈북자라 뻔죽하다고 하겠지.

## 나. 정착에서의 어려움

① 저는 북한에서 교사였는데, 여기 오니까, 북한에서의 교사가 인정이 안돼는 거예요. 내가 할 줄 아는건 아이들 가르치는거 밖에 없는데, 지금 공장에서 일한다 말입니다. 물론 그건 내가 이 사회에서 사는 한 감수해야 한다, 이러면서 사는데, 그래도 인정해줬으면 하는 맘이 있죠.

② 탈북 교사들이 실력이 다를 수 있지만, 여기 초등학교 1,2,3학년까진 탈북 교사들이 가르칠 수 있어. 탈북 교사들이 가르칠 수 있는 과목이 있어. 수학 같은거. 탈북 선생님들은 이미 배운 사람이야. 탈북 교사가 배우면 가르칠 수 있어. 시험 같은 걸 보고 통과를 시켜주면 좋은데, 그 시험이 없어. 우리는 ‘방과 후 교사’뿐 아니라 ‘일반교사’가 되고 싶은 거야. 2013년부터 탈북 교사들이 남북하나재단 소속으로, 하나재단 사업으로 탈북한 아이들을 가르쳐. 학부모 상담하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어. 그게 일반으로 확대되어야 해.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좋겠어. 2015년부터 남북하나재단 시험에 합격하면 방과 후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탈북 아이들만 가르칠 수 있어.

③ 경험이 없고, 정보가 없으면 어딜 가는게 정말 무서워요. 한국에 와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을 거라는 기대를 갖고 오는 사람이 있는데요. 저는요, 진로 상담할 때 예술을 하고 싶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저 있던 공동체랑 상담원이 극구 반대하는 거예요. 차라리 옷수선을 배우라고. 다양한걸 알려주는게 필요해요. 저는 굶어죽어도 제가 하고 싶은거 하면서 살고 싶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처음부터 탈북자한테는 예술 같은건 권하지 않는거 같아요. 당장 먹고 살수 있는 그런것만 권하더라구요.

④ 가끔은 남쪽 애들이 우리 지원해주는걸 못마땅해 하는게 느껴져요. 이해도 돼요. 우리가 뭐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하는데 하나 도움준거 없는데, 집주지, 학비 보조하지, 이러니 싫겠죠. 그럼 이런 생각도 들어요. 차라리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실향민들 다 잘 살잖아요. 그 사람들 무슨 지원 같은거 해주지 않았잖아요. 그래도 악착같이 일어섰거든, 그러니까 무시를 못하잖아. 차라리 똑같이 경쟁을 시켜주면 좋겠어요. 그게 더 탈북민을 돕는 길이야.

⑤ 제가 처음 대학에 갔을 때, 같은 말인데 하나도 알아듣지 못하겠는거예요. 이상하게 애들이나 선생님이 영어를 많이 쓰더라구요. 그리고 이런 적이 있어요. 한번은 과제로 ‘소비자 성향’에 대해 팀플로 조사하라고 했는데, 애들이 ‘우리 똥으로 해볼까?’ 이러는 거예요. 전 정말 속으로, 여기 애들은 ‘똥’도 성향에 따라 싸나? 이게 무슨 일이나 싶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베네똥’을 ‘똥’이라고 한거였어요. 하이고. 저는요, 대학이면, 대학에 들어가기 전에 이런 것들을 교육시켜주는 기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팀플’은 ‘팀-플레이’다, ‘똥’은 ‘베네똥’이다, 뭐 이렇게요.

#### 다. 입국 이전의 생활과 영향<sup>10)</sup>

① 탈북자들 중에 과장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탈북 이전과 관련되는 경우가 많아. 힘들게 여기 온 사람들이 이전에 겪은 힘든 과정을 다 말하고 싶겠어? 대충 얼버무리고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지. 중국부터 탈북자면 잡혀가니까 조선족이라고 거짓말 하며 사는데 그게 습관으로 남아 있는 경우가 있다고 봐. TV프로에 나오는 애들 9살, 10살 때 여기 온 애들이야. 어려서 왔으니까 북한을 다 기억 못해. 그렇지 않니? 작가가 그대로 써주는대로 말하다보니까 거짓말을 하는 거야. 나도 교사하다보면, 탈북자 학부형들 거짓말 하는거 보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솔직하게 말하면 혹시라도 불이익이 있을까봐 그런거야. 북한이나 중국에서 습관이 돼서.

② 북한 사회가 개방화가 되면서, 고위 간부한테 뇌물 먹이고, 이렇게 습관이 된거야. 장사로 다 먹고 사니까, 그럴려면 뇌물 아니면 안돼거든. 거긴 법이 없어. 그래서 여기 와서도 법이나 원칙을 지키기 보다는 일단 권력에 잘 보이려는 경우가 있어....

③ TV에 나가서 떠드는거, 잘 모르면서도 다 아는 것처럼 말하는거, 탈북 애들 TV에 나오고 싶으면요, 먼저 TV에 나왔던 탈북 선배 붙들고 이렇게 말해요. “언니 나도 텔레비죤 나오게 해줘”, 그럼 뭐라는줄 아세요? “야, 너 뭐라도 사연이 있

10) “입국 이전의 생활과 영향”에서는 주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자가 인터뷰한 북한 이탈주민은 입국 이전의 생활이 남한 사회의 정착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지만, 그와 같은 생각에 거부감을 갖는 이탈주민도 상당수 존재한다.

어야 내가 추천을 하지” 이렇다고요. 그럼 또 뭐라는줄 아세요? “언니, 나 중국에서 북한 다시 잡혀 들어가서 디지게 얻어 맞은 적 있는데, 그거 말하면 안통할까?” 이래요. 여기가 참 자극적인걸 좋아해요. 그냥 평범하게 탈출해서, 평범하게 온 사람은 쳐다도 안봐요. 온갖 고생고생 하다가, 팔다리 부러지고, 간신히 한국에 온 사람 그런 사람만 찾으니까, 탈북민들이 자기가 겪은 일을 더 부풀리는거 아닐까요?

④ 북한 남자들 나름 자존심이 강해요. 남한 남자들은 윗 상관이 뭐라 그러면 자존심을 꺾는데, 북한 남자들은 그걸 잘 못합니다. 그런데 그게 이중적입니다. 북한에서는 엎드렸거든요. 그런데 여기 온건 뭔가 새로운게 있을 것 같아서 온건데, 와보니 똑 같이 엎드려야 하니, 거기서 분노 같은게 터지는게 있지 않을까요? 저는요, 북한에서 담배 장사를 했는데요, 거기선 보위부, 검찰이 정말 권력입니다. 보안원이 와서 담배를 뜯어가요. 그것도 일주일 동안 겨우겨우 만든 걸 어느 날 와서 다 들고 갑니다. 정말 분노가.. 그런데 여기와서 어떤 일을 당하면, 가끔 그 분노가 살아나기도 해요. 잘살자고 왔는데, 뜻대로 안되니까... 분노가 있죠.

이와 같이 본 연구는 북한 이탈주민과의 대화를 종합하여 소재에 따라 재구성했다. 물론 본 연구자가 진행한 인터뷰의 모든 내용을 옮기지는 않았다. 무엇보다 예민한 부분이 있으며, 본 연구의 목적은 평화·통일 교육의 방안 모색이므로 ‘인터뷰의 활용’에 보다 초점을 두고자 함이다. 장시간에 걸친 심층 인터뷰 과정은 북한 이탈주민의 축적된 고충을 이해하는 시간이었으며, 북한 이탈주민은 ‘하고 싶은 말을 한다’는 것만으로 이 시간을 의미 있게 받아들여주었다. 인터뷰에서 주의할 것은 상황에 대한 선부른 판단이나 반대 의견을 개진하지 않는 것이다. 인터뷰는 발화자의 감정의 흐름에 맡겨두는 것이 필요하다.

## 2. 인터뷰를 연극대본으로 전환하기

이제는 인터뷰 내용을 연극대본으로 전환하고자 한다. 방법은 인터뷰의 내용을 극으로 구성하는 것이다. 극(Drama)이란 갈등의 예술이므로 무엇보다 인터뷰의 내용을 갈등과 엮어서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동시에 감정이입의 사실주의 극보다는 교육생이 연극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극으로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아리스토텔레스적 극작보다는 브레히트적 극작을 선택했다. 방식은 남측 청년 2명(호준, 현정)과 북측 청년 2명(진욱, 수진)이 토론하는 ‘토론회’ 형식이다. 대본화 과정에서 주의할 것은 인물구축이다. 본 연구가 대본을 구성하고 배우들과 실제 연습에 들어갔을 때, 배우들이 토론했던 어려움은 2-3사람이 섞인 듯한 한 명의 인물을 연기하는 것이었다. 배우들은 “내가 한 사람 같지 않아요. 앞쪽 대사를 보면 수줍은 사람 같은데, 뒤쪽 대사를 보면 너무 적극적이예요”라며 해결해주기를

원했다. 인터뷰를 토대로 대사를 재구성함으로 하나의 인물에 북한 이탈주민 2-3명의 말이 섞여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대본 작업에서는 이 점을 주의하며 새롭게 창조한 극중 인물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극적 갈등이 너무 첨예해도 평화·통일 교육에 역효과일수 있으므로 신중함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 점을 유의하면서 분류한 인터뷰에 상상한 갈등을 엮어 ‘1막. 차별vs이해’, ‘2막. 과장vs자극적인 것에 대한 관심’, ‘3막. 아비투스vs상호문화적 관점’, ‘4막. 돕는 관계’를 구성하였다. 이 대본을 활용할 경우 1막부터 4막까지 모두 진행할 필요는 없다. 교육생과 교육의 목적에 따라 순서를 바꾸어도 무방하며, 1막만으로도 가능하며, 1막의 한 장면만으로도 가능하다. 그것은 교육자의 판단에 따른다. 다음 제시하는 연극대본에서 도형 속의 글은 대본창작과 교육방향에 대한 본 연구자의 제안이다. 연극을 위한 무대는 테이블 1개와 의자 4개가 필요하다. 어느 장소에서 교육이 이루어질지 모르므로 무대의 대道具와 소道具는 간략할수록 좋다.

#### 가. 1막. 차별 vs 이해

1막의 목적은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북한 이탈주민의 미묘한 고충을 이해하는 것이다. 1막에서는 인터뷰 내용 중 가-①, 가-②, 가-④를 적용하였다.

##### 프롤로그

호준: 그래. 정말 우리 솔직하게 말해보자. 너네 들은 탈북해서, 여기 남한 땅에 정착해 사는데 뭐가 제일 힘든지? 정말, 정말 힘든 거, 화나는 거 있으면 지금 다 말해봐. 우리 같이 해결해보자. 힘든 거 있잖아.

진욱: 있지. 나 있어.

호준; 그래, 너네 참는 것도 많잖아.

진욱: 맞아. 나 정말 많이 참아.

호준: 그런 걸 다 말 해줘, 여기 선생님들하고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해결해보자.

제안: 참여와 소통의 교육이므로 교육생들이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대사를 연극의 초반에 넣을 필요 있음. 또한 이 연극의 목적은 갈등이 아니라 해결이라는 것이 대사에서 배어나올 것을 권함.

진욱: 오케이. 나도 이런 시간이 주어져서 기대가 된다. 진짜 조금이라도 뭔가 해결됐으면 좋겠다.

현정: 이런 시간 정말 필요해. 우리 모두한테. 니들은 니들만 힘들다고 생각하지? 그렇지 않아. 남한 애들도 너네랑 학교나 직장에서 같이 생활하는 거 힘든 거 있어. 생각해봐. 집안에 며느리가 들어오면, 물론 며느리 힘들겠지. 자기 살던 집, 가족 다 떠나서 오는 거니까. 그런데 시아버지, 시어머니도 며느리가 들어오면 힘들어. 며느리가 착하고 안

착하고를 떠나서 새사람이 들어오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 안하니?  
수진: 그렇겠지. 맞아.. 북한에 살 때, 우리 올케언니 들어왔을 때 엄마도 힘들어했으니까...  
그런데... 너넨 우리가 뭐가 그렇게 힘들니? 우리가 너넨 뭘 힘들게 했다고....?

(모두 웃음)

호준: 그러니까 서로 터놓고 얘기해보자. 여기 계신 선생님들한테도.

**제안: 연극 초반에 긴장을 풀고 웃을 수 있는 장면이 필요함. 물론 이러한 대사가 아니어도 상관없음.**

## 1막 1장

진욱: 좋아. 내가 먼저 시작하지. 선생님들도 잘 들어주세요.

**배우의 대사 중에 교육생 참여를 독려하는 대사를 적절히 배치해야 효과적임.**

내가 여기 와서 처음 정착할 때 돈을 벌어야 하니까 김밥 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어.  
그런데 내가 그때 월급을 60만원을 받았거든. 나 그때 정말 몸바쳐서 열심히 일했어.  
30분 일찍가서 화장실 청소부터 여름이고, 겨울이고 뻘뻘하게 했어. 그런데 내가 들어  
오고 8개월쯤 후에 조선족이 들어온거야. 그런데 조선족이 얼마 받았는지 알아? 80만  
원을 받았어. 정말 그때 열받더라.

호준: 열 받겠네. 너보다 늦게 들어왔는데, 왜 80만원을 받아? 항의하지 그랬어.

진욱: 항의했지. 그랬더니 사장님이 뭐라는 줄 알아? 개가 경험이 더 있어서 그랬데. 그런  
데 무슨 경험. 개나 나나 홀 서빙이었어. 서빙에 무슨 경력이 그렇게 필요하니? 북한  
사람은 조선족보다 못하다는 거야? 니들이 1등 국민이고, 조선족이 2등 국민이고, 우  
리가 3등 국민이야?

호준: 아니야. 절대 아니야!! 홀 서빙에 무슨 경력이 그렇게 필요하다고 돈 차별을 해? 그  
사장 놈 참 나쁜 놈이다. 내가 욕해줄게. 나쁜 놈!! 시원해??

**남북이 동의할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동의를 표현할 것을 권함.**

진욱: 응 시원해.

(모두 웃음)

수진: 그럼 내가 당한 것도 욕해줘. 우리 나라에 탈북민 관련 사단법인 어찌구 그런 곳이  
정말 많아. 그 단체들이 탈북민한테 지원을 해주거든. 의식주 뭐 이런거. 그런데 어느  
날 모 단체 대표가 날 부르더라. 갔더니 빵하고 우유를 주더라고. 감사하게 받아들고  
집에 와 봤어. 그런데 기가막혀.. 지금도 화나.. 그 빵하고 우유, 유통기한 지난거였어.  
유통기한이 지난걸 날 주더라고. 자기 자식한테 주겠니?? 아니, 내가 남한 사람이라면  
그걸 컸을까?

현정: 진짜? 정말 나쁜 놈이네. 아니 년이니? 어떻게 유통기한 지난걸 줘?

수진: 물품 기부를 하면 세금면제가 있대나? 내가 그때 정말 눈물이 나더라. 울면서 다 집  
어던졌어.

현정: 내가 대신 욕해줄게. 나쁜 년!!! 됐어?

수진: 응. 쏘 기분이 좋다.

(모두 웃음)

진욱: 아, 나 또 있다. 나 시간이 지나고 좀 자리 잡혀서 강사생활 시작할 때, 국정원 같은 데서도 나 불러서 강의도 했고. 그러다보니까 내가 여러 군데에 홍보가 된거야. 그런데 강사비를. 참. 그런데 나한테 강사비를 얼마주면 좋겠냐고 물어보는 거야.

호준/현정: 응.

진욱: 그럴 때 .. 참 기분 나쁘더라..

호준/현정: 그래?? 그게 왜??

**남북이 동의하지 못하는 갈등이 있음을 제시하고자 함**

진욱: 강사비를 얼마주면 되냐고, 그걸 내가 정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잖아. 아니 이 사람이 내가 탈북자라고 물어보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냥 정해진 가격이 있잖아. 남한 사람이라도 그랬겠어? 강사비 얼마! 이렇게. 아니면 그냥 알아서 주든지. 나한테 물어보면, 비싸면 안 부르고, 싸면 부르겠다는거야, 뭐야. 그냥 이전에 얼마 줬을꺼 아냐. 전화 끊고 나면, 정말 기분이 상해.

현정: 그건 남한사람한테도 그렇게 물어볼지도 모르는거잖아. 남한 사람들한테 안 그럴 것이다. 이건 사실과 관계없이 그냥 니 생각인거잖아.

진욱: 상식적으로 이걸 운영하고 강사를 섭외하는 사람이 강사비 책정도 안하고 초대해? 그냥 얼마 드릴 수 있는데, 올 수 있냐, 이게 맞는거 아니야? 아니 내규도 없니?? 시간당 얼마! 이런 것도 없어?? 무슨 정가가 있는 것도 아니면, 그냥 알아서 주는 거지. 뭘 물어?? 니넨 내가, 내가 불쾌한 게 이해가 안되니??

호준/현정: ..... 그냥.. 그건... 그렇게 불쾌한 게 쏘 ... 잘 이해는 안 돼....

진욱: .... 그래 넘어가자. .... 그런데 나 강의하라고 전화가 오면, 항상 신용이나 시간을 참 잘 지키려고 노력해.

호준: 그건 좋은 거 아냐?

진욱: 그래 좋은 거야. 그런데 왜 화가 나는 줄 알아? 시간을 잘 지키려고 하는 내 이유를 나를 화나게 해. 난 내가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탈북자는 다 그렇구나 하고 생각할까봐 잘 하려고 죽도록 노력해. 그게 화나!! 너네 이해해??

현정: 그게... 그렇게 화가 나..?

**북한 이탈주민만이 겪는 미묘한 어려움을 교육생에게 이해시키고자 함.**

진욱: 북한 사람들 욕 안먹이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게 화나. 너네 남한 애들은 남한 애들 욕 안 먹이려고 노력하는 거, 그런 거 없잖아. 자기 하나를 위해서만 살잖아. 너 하나만 잘하고, 너 하나만 욕먹으면 되잖아! 우리만 플러스 알파로 뭔가를 더 해야 해. 그게 화나. 이해해??

호준: ....이해해. 그런데 너.... 조금 부담을 덜 가질 수는 없어?

진욱: 어떻게 덜 가져? 우릴 덩어리로 보잖아. 그냥 사람 하나하나로 보는 게 아니라, 탈북자들.. 이렇게 덩어리로 보는데.

호준: 그래... 그런데... 그건 조금은 다르지만... 남한사람들도 그런 경우 많아. 예를 들면,

지역으로 남한 사람도 덩어리로 보기도 해. 강원도 출신, 경상도 출신, 뭐 이렇게... 그리고 나 아는 누나가 이대 나왔거든. 그런데 그 언니 처음 회사 들어갔을 때, 아주 조심했는데. 이대출신 이미지 나쁘게 안 할려구. 그런 거 다 있어. 너네만 겪는 거 아니야. 수진: 그래. 맞는데, 그게 아니야. 그거랑 또 달라. 그럼 너네 이거 이해해? 북에 있을 때 내 친구가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런데 개 정말 예의바르고, 공부도 잘했고 착했어. 충성심도 강해.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아버지 없이 커서 그런다고 할까봐 죽도록, 죽도록 조심하는 거야. 난 개가 불쌍하더라. 다른 애는 잘못하면, 그냥 잘못하는 건데, 내 친구는 “아버지가 없이 커서”야. 그거랑 비슷해. 사람들은 잘못하면 그냥 잘못하는 거잖아. 그런데 우린 탈북자라서 그런다고 생각할까봐... 그러니까 매사에 더 조심해. 그게 화가나. 그리고 피곤해. 그리고 뭔가 어떨 땐... 가슴이 터질 것 같아... (울먹) 니들 이해해? 니들은 돈하고 연결된거면 아주 이해를 잘해. 그런데 강사비 얼마 주냐고 물어서 우리 마음 상하는 건 이해 못해. 그런 미묘한 거, 복잡한 거, 아니 오늘 여기서 해결은 둘째 치고, 우리가 겪은 사건 말고, 그냥 우리, 그냥 우리를 이해해?? 난 이해받고 싶어!!

1장을 마치고 사회자는 교육생과 연극에 대해 대화를 함. 이때 사회자는 북한 이탈주민만이 겪는 미묘한 어려움을 교육생이 이해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함.

## 1막 2장

1막 2장의 목적은 남북이 다 같이 잘사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임. 인터뷰 중에서 가-⑤, 나-①, 나-②, 나-④를 적용하였음.

호준: 그럼.. 이번엔 조금 주제를 바꿔보자. 너네들 지금 지원받는 게 뭐가 있니?  
수진: 기초생활수급,  
호준: ..내가 조심스럽지만... 거기에 대한 우리 불만을 말할게. 물론 다는 아니지만 너네랑 공부하는 남한 애들, 너네가 받는 그 많은 혜택... 화나기도 해... 물론 너네 힘들어. 그래서 당연히 국가적으로 지원이 있어야지. 너네 대학가려고 할 때, 사립대는 등록금 50%, 국립대는 무료 맞지? 너네 남한 애들이 등록금 마련하기 위해서 얼마나 죽도록 알바 하는지 알아? 나만해도 방학 때마다 정말 힘들었어.  
수진: 맞아. 우리 등록금 혜택도 있어.  
호준: 그리고 방학 때 니들 외국 가는 거 공짜로 나갈 수 있는 기회 정말 많지 않아? 후원해주는 단체가 많으니까. 니들 방학 때마다 골라서 간다면? 그런데 오히려 우리한테 그런 기회가 정말 없어.  
(잠시 침묵....)  
진욱: .. 니 말 이해해.. 나보다 먼저 왔던 사람이 내가 기초생활수급비 못 받는다고 하니

까.. 나보고 답답하다고 하더라... 어디 가서 진단서를 떼어오라는 거야. 고문 받아서 머리가 아프다. 귀가 울린다, 나보고 그러라는 거야. 진단서가 있으면 기초생활수급비가 쏙 나온대. 내가 화를 냈어. 너무 자존심이 상해서 때려치라 그랬어. 내가 그 돈 받으려고 탈북을 했나 싶어서.

(잠시 침묵....)

**지원에 대해 북한 이탈주민이 다양한 입장이라는 것을 교육생이 이해하도록 함.**

진옥: 어떨 때는 대한민국 정부에서 아무것도 지원 안 해 줬으면 하는 생각도 들어. 공부해야 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주는게 더 중요한데...

호준: ... 지원에 대해서는 생각들이 너무 다양해서.

진옥: 알아, 이게 내 생각뿐인거. 그런데 나도 내 생각을 말할 권리는 있잖아?

**배우의 대사가 북한 이탈주민의 전부의 생각으로 비춰지지 않도록 ‘개인의 생각일 뿐’이라는 것을 강조할 필요 있음.**

호준: 물론이지.

진옥: 우리를 똑같이 경쟁을 시켜달라는거야. 어렵게 하는게 궁극적으로 탈북자를 더 돕는 길이야. 대한민국은 이런거다, 자본주의는 이런거다, 이게 싫으면 오지 마라, 그냥 이렇게 해.

현정: 맞는 말 같으면서도.... 왜... 선뜻 동의가 안돼는지 모르겠네..

(잠시 침묵....)

수진: ....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거 정말 고마워. 내가 대한민국이 이렇게 성장하는데 도움 준거 없잖아. 그런데도 나한테 그렇게 해주는 거 정말 눈물 나게 고마워... 그런데... 그런데....

호준: 뭐? 편하게 말해봐..

수진: 정말 더 어려운 건.. 지원 안 받고 내 힘으로 돈 벌려고 하면, 탈북자라고 안 쓰는거야.

**물리적 지원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차별에 대한 북한 이탈주민의 어려움을 이해할 필요 있음.**

나 여기서 초등학교 영어 과외 했었어. 수업이 짹짹했어. 엄마들도 나 좋아했고. 그런데 그 엄마가 어떻게 내가 북한에서 온 줄 안거야. 그리고 나서 북한에서 왔는데 참 똑똑하다고 이러면서 칭찬을 하시더라구. 그런데 그 다음날 어떻게 됐는지 알아? 애들을 안 보내더라고. 참.. 나보고 똑똑하다고 칭찬은 왜 하니? 니들 정말 정떨어져. 겉으로 웃고, 뒤로는 비수꽃고.

현정: 비수 꽃는거 니들도 마찬가지야.

수진: 그래도 니들이 더 꽃아!!

현정: 세봤어??

(...침묵...)

호준: ...하하하... 아...하하하.. 그래..그거 나중에 세보기로 하고, 아니 얘기하기로 하고,  
아.. 머.. 다른 얘기... 하하 해볼까..? 또 힘든거..  
수진: ... 내가 또 다른 사례 말해볼게. 북한에서 선생님하다 온 사람 여기서 다 뭐하는지  
알아? 선생님 못해. 공장가서 일해. 북한에서 선생님을 했으면, 여기서도 할 수 있는  
거잖아. 왜 그걸 인정 안 해?  
호준: 그건... 여러 가지로 복잡해.. 생각해봐. 니네가 배운 거랑 우리가 배운 거랑 다르잖  
아. 그리고 정교사는 아니지만, 북한 교원 10주 교육하면 탈북민 방과후 선생님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새로 만들었잖아. 그런것도 있어.  
진욱: 탈북민 말고 일반 선생을 하고 싶은 거야. 북에서 선생님을 했으면, 여기서 다시 공  
부하면 충분히 선생님을 할 수 있어. 초등학교 교과서, 물론 북한이랑 다르지. 그렇지  
만 다시 공부하면 돼잖아. 거기서 선생님이었으니까.  
현정: ... 저기... 저기... 내가 너희들 능력을 무시하는 건 아닌데... 예를 들면... 그래 철학을  
생각해보자. 니들 거기서 철학자 누구 배우니? 니들 그냥 김일성 주체사상만 배우잖  
아.  
진욱: 맞아.  
현정: .. 니들 플라톤이나 칸트, 푸코, 이런 철학자 모르잖아. 그런데 책 몇권 읽었다고 플라  
톤이나 칸트 다 이해하는 거 아니잖아. 그렇지 않아? 지식이라는 게, 무언가를 안다는  
게 책 몇 권 읽었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  
진욱; 플라톤, 칸트?? 그거 아는게 그렇게 대단한거야?? 이 썩어빠진 미-제국주의의 꼭두  
각시 같으니라구!!  
(모두 웃음...)  
현정: 너 진짜 웃긴다... 그리고 미안한데.. 플라톤이랑 칸트는 미국사람 아니야!!  
(모두 다시 웃음.....)

**긴장된 대화가 진행될 때에는 이와 같은 comic relief가 필요함.**

진욱: 그래.. 철학 몰라... 안 가르쳐줬으니까.... 그런데 거기서 소학교, 중학교 선생님을 했  
다면 적어도, 남한에서 초등학교 1,2,3학년 선생은 할 수 있어. 남한은 초등학교에서  
뭐 그렇게 대단한 거 가르쳐? 아무리 체제가 달라도 북한 소학교, 중학교 선생이 어떻  
게 남한 초등학생도 못 가르친다고 생각할 수 있어??  
호준: 그럼 니네 초등학교 사회랑 역사 같은 거 북한에서 온 사람이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  
해? 그래 수학 문제 이런 거 더하기 빼기 나누기 뭐 이런 건 가능하다고 치자, 어떤 과  
목을 가르친다는 건 문제 하나 풀어주는 게 아니라 그 과목에 대한 더 넓은 배경이 있  
어야 하는 거잖아. 그거 맞는 거잖아.  
수진: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니?? 그럼 시험을 보면 되잖아!! 우리는 시험제도가 있었으면  
 좋겠어. 우리도 이 사회에서 인정받고 싶으니까!!  
.....(잠시 침묵.....)

**사회자는 이 장면 후에 북한 이탈주민의 재취업에 대해 교육생과 진솔하  
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야 함. 자유롭게 토론하되 모두 같이 잘 사는 사  
회를 위해 진지하게 방법을 모색하는 시간이 되어야 함.**

## 나. 2막: 과장 vs 자극적인 것에 관한 관심

2막의 목적은 남측이 북한 이탈주민에 대해 갖는 불편감을 상대를 이해함으로써 해결하고자 함. 인터뷰 중에서 다-①, 다-②, 다-③을 적용하였음.

호준: 그래..... 그럼... 이번엔 우리가 힘든 걸 말해볼까? 이걸 나뿐 아니라 너네랑 같이 일하는 남한 사람들이 힘들다고 한 건데... 솔직하게 말해볼게. 우리가 힘든 게... 너네 이탈주민들이... 물론 일부겠지만.... 말할 때 과장을 하는 거야...

진욱: ... 그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야. 여하튼 그래서 속상했어? 내가 욕해줄게. 나쁜 놈!!!

(모두 웃음)

1막에서 남측이 남한 사람에 대해 욕을 했듯이, 2막에서는 북측이 북한 사람에 대해 욕을 하는 장면을 넣었음. 남북이 남남-북북에 대해서도 객관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함임.

호준: 북한에선 이동의 자유가 없잖아. 그래서 지방에 살다보면 평생 평양에 한 번도 올라가 보지도 못하잖아. 정보가 제한적이지.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야. 나 남한에서 사는 데 남한 다 몰라. 솔직히 남한 제도 이런 거 여기서 살아도 모르는 거 많아. 그런데 너네 북한 애들하고 말하다보면, 분명 아닌데도 그렇게 모든 걸 다 아는 척을 하더라고.

수진: 아... 그래.. 뭐 말하는지 알아... 그런데.... 그건 꼭 우리 탓이 아니라 너네도 책임이 있어...

타자의 잘못은 타자만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을 교육생에게 이해시키고자 함.

현정: 우리가 무슨 ... 책임...?..

수진: 너네 TV가 너무 자극적인 걸 좋아해.

현정: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우리가 무슨 자극적인 걸 좋아해?

수진: 이걸 우리끼리 말할 문제가 아니라... 선생님들. 제 말 듣고 한번 판단해주세요.

이와 같이 배우가 교육생과 직접 소통함으로써 교육생의 '참여'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음.

너도 잘 들어. 5년 전에 제가 모방송국에서 나오라고 전화 받은 적이 있었어요. 인터뷰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쪽에서 저한테 말을 바꾸라는 거예요. 저는 온지 오래 되어서 이제 북한말 안써요. 그런데 모프로에서 북한 말을 쓰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저는요, 그냥 고향사람 만나면 자연스럽게 사투리가 나오고, 아닌 자리에선 북한 말 안 나와요. 여기 남한도 지방에서 오신 분들은 고향분 만나면 사투리 나오고 그런거랑 똑같아요. 그런데 방송국에서 날 섭외하면서 억지로 사투리를 쓰라고 하더라고. 너 티비에서 왜 그런다고 생각하니? 응? 우리가 사투리를 쓰는 게 뭔가 더 재미있어 보이니까. 탈북자

가 여기 사람하고 똑 같으면 프로가 재미가 없으니까. 그럼 시청율이 떨어지니까. 그런 거 아냐? 우리가 북한스럽기를 원하더라구요. 아니, 말투 하나도 하라는대로 해야 한다면, 나와서 하는 말도 써주는 애기 하는구나 싶더라,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

북한에서 티비 나오는 건 하늘에 별 따기예요.. 중앙당 쪽으로 올라가거나 김일성 뒀라도 되야 나올까 말까였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정말 마음먹으면, 시청율 꽤나게 해주면 북한보다 훨씬 쉬워요. 그럼 그걸 발판으로 뛰어다니는 사람들 있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예요?

선생님들. 제가 아는 이탈주민 중예요, 이름은 말 못하지만, 이00가 있어요. 그 사람 티비 나와요. 그런데 그 사람 정말.. 아주 보통이 아냐. 일단 거짓말이 ... 제가 이00가 말하는거 유튜브로 들어서 아는데, 교회 가서 하는 말 틀리고, 사회단체에 가서 하는 말이 틀려요. 정말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자기가 어떤 에피소드를 말했을 때 사람들이 웃음이 터지는지, 안터지는지를 너무 잘 알고있더라고요. 맞아 대 놓고 사짜야. 그런데 그걸 가지고 해외도 다니고 아주 난리가 났어.

제가 그 사람 얘기를 하는거는요, 저는 그 사람하고 부딪힐 일도 없고, 싸울 일도 없고, 그 사람 꼬집어 내릴 일도 없어요, 질투하는 것도 아니예요. 저 지금 충분히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는 건 제발 거짓말 하고 다니면서 북한사람 쪽팔리게 하지 말아라, 저는 그거예요. 그저 북한에서 사는게 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도둑질을 엄마한테 배웠습니다. 거기선 도둑질만 하고 살았습니다. 이게 뭐냐고. 시시각각 거짓말. 왜 말도 안되는 거짓말을 하냐고. 나도 이렇게 답살뜰게!!

(모두 웃음)

수진: 야! 웃지마!! 너넨 왜 그렇게 자극적인 걸 좋아하니? 심지어 어떤 일이 있는지 알아? 탈북 애들 티비에 나오고 싶잖아? 그럼 먼저 티비에 나왔던 탈북선배 붙들고 이렇게 말해. “언니, 나도 티비 좀 나오게 해줘.” 그럼 뭐라는 줄 알아? “야, 너 뭐라도 사연이 있어야 내가 추천을 하지” 이런다고, 그럼 또 뭐라는 줄 알아? “언니, 나 중국에서 북한 다시 잡혀 들어가서 디지게 얻어 맞은 적 있는데, 그거 말하면 안 통할까?” 이런다고. 어떤 사람들에게 너네가 주목하는지 한번 스스로 살펴봐. 디지게 얻어맞거나, 죽을 고비 3번쯤 넘기고 남한에 왔거나, 중국에서 온갖 고생고생 다하다가, 팔다리 서너개 부러지고, 간신히 한국에 들어온 사람, 그런 사람을 너네가 주목해. 그러니까 탈북민들 과장이 느는 거야. 니들 태국 난민 수용소 어떤지 알아? 거기서 40일 있었던 것도 정말 정말 끔찍한 일이야. 그런데 그런 건 니들이 관심도 안 가져. 왜? 난민수용소 다 거쳐서 오니까. 모두가 다 겪는 거라면 오히려 관심을 가져야 하잖아. 그런데 니들은 절대 안 그래!! 니들 뭔가 특별한 거에 목숨 걸잖아!! **선생님들. 제가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사회자는 타인의 잘못은 타인의 것만이 아닐 수 있음을 교육생들과 이야기함. 동시에 자극적인 것에 관심을 기울이고, 평범한 것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측면이 우리에게 있는지를 성찰해야 함. 평화로운 공존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교육생들과 이야기 함.

#### 다. 3막: 아비투스 vs 상호문화적 관점

3막의 목적은 남북한 다름을 상호문화적 관점으로 이해하는 것임. 인터뷰 중에서 다-②, 다-④를 적용하였음.

현정: .. 그럼 나도 하나 말할게. 나 힘든 거 말할게. 너네.. 참.. 아니, 쯤.. 공격적더라. 같이 대화할 때, 의견이 안 맞으면 너네 금방 공격적으로 변하더라. 오해하지마. 물론, 물론 일부야, 정말 순한 사람도 많아. 북한 문화를 버리고 이쪽에 딱 적응을 해야 하는 거 아니겠어??

호준: ... 미안한데... 현정아... 나는 좀 너랑 생각이 달라... 남북의 문화가 다르긴 하지.. 그래서 우리가 북한 애들한테 답답한 거 있고.. 안타까운 거 있고.. 그런데.. 북한 애들이 왜 우리 문화에 일방적으로 적응해야 해? 내 말은.. 우리가 우리는 고정시키고, 북한 애들한테 우리에게 맞추라고 요구하는 건.. 난 그건 좀 아니라고 봐....

남북의 평화공존을 위해서 어떠한 태도가 필요한지 하나의 입장을 제시하는 장면임. 특히 이 장면은 교훈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대화 속에서 부드럽게 나타낼 필요가 있음.

현정: 그럼 넌.. 탈북민이 북한에서 했던 그런 문화를, 예를 들면 북한에서 뇌물로 움직이던 문화를 여기에서도 하는 게 맞다는 거야?

호준: 물론 아니야. 절대 아니야. 뇌물 문화는 정말 잘못이지! 그렇지만 그건.. 어쩌면..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는 ... 문화의... 왜곡된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어, 다시 말하면, 촘촘한 뇌물은, 촘촘한 의지시스템... 의지하는 문화.. 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문화의 현상이 아니라 문화의 본질에 대한 존중을 생각하고자 함.

진욱: 너 말 잘했다. 맞아. 뇌물은 잘못이야. 그런데 뇌물을 주긴 했지만, 그 대신에 북쪽에서는 의지할 뭐가 있었어. 이렇게 저렇게 하면 되는 거, 안전한.. 뭐 그런, 그런 게 있었어. 그런데 여기선 하나도 없어. 그냥 침부터 마지막까지 내가 혼자 다 해야 해. 뇌물을 예로 들면, 그건 정말 나빠! 분명히 나빠! 그런데 사람이 사람을 의지하는 건 나쁜 게 아니잖아.

호준: 가끔.. 나 정말 깊이 생각해봐. 내가 누구에게 무슨 권리로 “이걸 버려라, 저걸 버려라” 할 수 있을까? 나는 중심인가? 나는 기준인가? 그럼 탈북민은, 다문화는 주변인가? 그래서 그 사람들은 나한테 맞추어야 하는 건가? 중심은 뭐고, 주변은 뭐니? 그럼, 북한이 아니라, 예를 들면 서울과 울산이라고 하자. 서울이 중심이니? 울산은 주변이고? 아니잖아.. 우리가 정상이고, 탈북민은 비정상이야? 그래서 정상인 우리에게 맞추라는 거야? 그건 아니지 않아?

이와 같이 대사를 통해 교육생과 상호문화주의적 관점을 생각해보는 것을 권함.

진욱: 맞아! 맞아! 뇌물 주는 것만 말고, 의지하고 싶은 마음은 우리 탈북민이 그대로 갖고 있어도 되는거 아냐?

수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면, 뇌물을 주게 된다니까!

호준: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면, 그 과정에서 나오는 부작용은 어떻게 해? 그 부작용이 인간에게 실제로 더 끔찍한 거라면.. .... 내가 자신 없는 건, 지금 우리가 옳다고 여기는 거.. 언제까지 옳은 걸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야.. 조선시대에 옳았던 거 지금 틀린 것도 있잖아. 그렇다면 지금 옳다고 믿는 어떤 하나도 300년 이후에는 틀린 것일 수 있잖아..... 어쨌든 옳은 건 여러 개일지도 모르잖아... 우린.... 사람들이한테.. 어디까지 요구하고, 어디까지 너의 것을 버리라고 말 할 수 있는 걸까..? 난 자신이 없어...

상호문화주의, 다양성에 대한 생각을 환기하고자 하는 장면. 사회자는 북한 문화의 현상이 아니라, 본질에 있어서 우리가 수용할 것에 대해 교육생과 대화함. 또한 우리와 다른 타인에 대해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지를 토론하기를 권함.

#### 라. 4막: 돕는 관계

4막의 목적은 남북이 서로 보완관계가 있을 수 있고, 서로를 배울 수 있으며, 보완할 때 보다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음을 환기시키고자 함. 인터뷰 중에서 나-③을 적용하였음.

수진: 나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애들아, 난 하나원 나와서도 우리한테 교육을 좀 다양하게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어. 물론 이건 내 바람이야. 다른 탈북자는 어떤지 모르겠어. 나 북한에서는 김일성한테 세뇌 당했거든. 그런데 여기 오니까 ‘노후대책’을 세뇌시키더라구.

교육생에게 우리는 무엇을 가치로 여기는지를 생각하게 함. 이런 장면은 유도있게 처리하는 것이 교훈적이라는 느낌을 덜 줄 수 있음.

(모두 웃음..)

수진; 세뇌는 어디나 있나봐. 먼저 온 탈북 선배도 나만 보면 노후대책, 노후대책, 니네도 나만 보면 노후대책, 노후대책.. 노후대책 말고 다른 것 좀 가르쳐주면 안 돼? 니넨 늙어서 대책이 없다는 게 그렇게 겁나니?

교육생과 함께 우리의 사회가 무의식적으로 갖는 공포를 성찰하게 함.

진욱: 맞아. 나도 정말 묻고 싶다. 늙어서 돈 없는데 그렇게 겁나?

현정: 그렇지.. 늙으면 힘이 없는데, 돈까지 없으면, 어떻게 해? 요즘은 100세까지 산다는데..

진욱: 그냥 길바닥에서 죽으면 되잖아. 하고 싶은 일, 목숨 걸고 하다가 그냥 죽어!

.....

.....

진욱: 왜 겁나? 우린, “수령을 위해 목숨을 바치자”, “조국을 위해 이 한 몸 총폭탄 되자”, 이런 말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하면서 살았어. 물론 말하는거랑 지키는건 다르지. 거기서도 수령 위해 지금 죽을 사람 몇이나 될지는 모르겠어. 그리고 수령을 위해서 죽는 건 잘못된 거지. 그렇지만 우린 너네처럼 뭐 그렇게 안전하게, 무사하게 살려구 바둥거리진 않아. 그런 건 니네에 비해서 우리가 훌륭한 거 아니야?

수진: 맞아, 니넨 뭔가 뜨거운 게 없어!! 다들 물에 물탄 듯, 술에 술탄 듯 살아. 우리가 보기엔, 아니 내가 보기엔 그래. 그런데, 니넨 그걸 ‘교양’ 뭐 이렇게 말하는 거 같더라, 그래서 난 웃을 때도 조심해. 교양 없을까봐.

**교육생들에게 타자의 시선으로 우리를 돌아보게 함.**

(모두 웃음)

수진: 뒤에 죽도록 충성을 바치는 거, 물론 수령 말고, 그러니까 내 꿈을 위해서 목숨 바치는 거, 이게 노후대책 보다 더 중요한 거 아니야?

현정; 듣고 보니 그러네... 니네 말이 맞다. 노후가 뭐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우리가 쫓소심하다.

(모두 웃음)

진욱: 니넨 우리 탈북자가 직업적으로 안정되어야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애. 틀린 생각은 아니야.. 대부분의 탈북자도 안정된 직업을 원해. 그렇지만.. 어떤 탈북자는 굶어 죽어도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다른 세상 맛보고 사는 걸 더 행복해할 수 있는 거잖아. 정말, 다르게 생각하는 거, 세상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북한에서는 그런 교육 아무것도 받지 못했어. ....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 니들도 태어날 때부터 우리랑 다르게 생각했던 거 아니잖아..

**교육생에게 남과 북의 차이는 구성되어진 것이라는 생각하게 함.**

.....(잠시 침묵).....

현정: .. 탈북자한테만 인간의 가치.. 철학.. 이런 교육을 안 시키는게 아니고, 우리나라 자체가 인간의 가치, 다르게 보기, 이런 걸 생각 안하는지도 몰라... 들어봤지? 인문학의 위기.

호준; 맞아. 지금 국문과 없어지는 대학도 있어. 철학과 없어지는 대학도 있고. 취직이 안 되니까. 그게 우리 현실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는 교육 시키고 너희는 안 시키는 거 아니야.

수진: 어렵다... 우리도 우리지만, 니네도 참 걱정된다..

호준: 니네가 도와주면 안 될까..? 우린 서로 도움이 필요한 거 같은데..?

**사회자는 남과 북이 합해질 때, 어떤 성장이 있을 수 있는지, 인문학적으로, 경제적으로, 다각도에서 이야기를 나누어 남북 공존의 유익을 같이 생각하도록 함.**

본 연구는 이와 같이 북한 이탈주민과의 인터뷰를 재분류하고, 극적 효과를 위해 다시 갈등을 엮으면서 재구성하여 연극대본을 완성했다. 앞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4막으로 구성되어 있는 본 연극대본에서 교육자가 필요한 부분을 선택하여, 교육생에 맞게 또 다시 재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면, 1막 1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장면이 있다.

진욱: 좋아. 내가 먼저 시작하지. 선생님들도 잘 들어주세요. 내가 여기 와서 처음 정착할 때 돈을 벌어야 하니까 김밥 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어. 그런데 내가 그때 월급을 60만원을 받았거든. 나 그때 정말 몸 바쳐서 열심히 일했어. 30분 일찍가서 화장실 청소부터 여름이고, 겨울이고 뻘뻘지게 했어. 그런데 내가 들어오고 8개월쯤 후에 조선족이 들어온거야. 그런데 조선족이 얼마 받았는지 알아? 80만원을 받았어. 정말 그때 열 받더라.

이 장면은 진욱이 차별을 느꼈을 때를 토론식으로 말하는 장면이다. 그런데 이 장면을 토론식이 아니라 다음과 같이 극으로 재구성할 수 있으며, 극의 진행 중에 사회자가 개입할 수 있다.

장소: 김밥집,

등장인물: 진욱(북한 이탈주민) 사장(남한)

진욱: (열심히 테이블을 닦으면서) 아, 내일이 월급날이지. 나보다 늦게 들어온 놈이 80만원을 받았으니, 사장님이 나도 80만원을 주시겠지? 아, 기다려진다.

(사장, 들어온다)

진욱: 사장님, 오셨어요?

사장: 아. 그래. 아, 오늘이 월급날이지?

진욱: 네! 기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장: 여기있다. 한 달 동안 수고 많았다.

진욱: 감사합니다.

(사장, 들어가고 혼자 남은 진욱이 봉투에서 돈을 꺼내 세본다.)

진욱: 하나, 둘.... 아니... 이게 뭐야....? 6.. 60만원? 이럴 수가. 나보다 늦게 들어온 놈이 80만원을 받았는데, 60만원?? 내가 뭘 못해서? 절대 못 참아!!! 사장님!!! 사장님!!!

(사장, 나온다)

사장: 뭐야, 니가 지금 소리 지른거야?

진욱: 네! 제가 질렸습니다.! 사장님, 제 월급이 왜 60만원입니까? 저보다 늦게 들어온 조선족 후배가 80만원을 받았는데요?? 지금 차별하시는 겁니까? 제가 북한에서 왔다고 차별하시는 거냐구요!!

사장: 개는 늦에 왔어도 너보다 경력이 더 많아!!

진욱: 무슨 경력이요?? 요리도 아니고, 홀 서빙에 무슨 경력이 필요합니까??

사장: 야! 너 그렇게 밖에 말을 못해?? 니 태도가 그게 뭐야??

사회자: 배우들, 정지!(무대의 배우들을 멈추게 한다. 교육생을 향해). 지금 보셨다시피 이런 갈등이 있습니다. 선생님들. 아마 이렇게 싸우는게 옳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실 겁니다. 이 연극을 다시 한 번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중간에 정지를 시킬 겁니다. 그때 선생님들은 이 무대를, 이 세상을 바꾸어 주세요. 선생님들이 세상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이후 연극을 처음부터 다시 진행한다. )

(처음 생략.....)

진욱: 하나, 둘.... 아니... 이게 뭐야....? 6.. 60만원? 이럴 수가. 나보다 늦게 들어온 놈이 80만원을 받았는데, 60만원?? 내가 뭘 못해서? 절대 못 참아!!! 사장님!!! 사장님!!!

(사장, 나온다)

사회자: 정지! 자 선생님들, 여기에서 진욱이가 어떻게 말을 해야 할까요? 선생님들이 진욱이의 대사를 주세요. 그러면 이 연극이 바뀝니다. 그것은 곧 세상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교육생: 진욱이가 좋은 말로 하면 좋겠는데요.

사회자: 대사를 주세요. 어떻게요?

교육생: 아까처럼 화내지 말고 “잠시 여기 앉아보세요.” 그런 다음에 “제 월급을 60만원 주셨는데요.. 저보다 늦게 들어온 사람은 80만원을 받았더라고요.” 이런식으로 좋게 말하면.

물론 교육생의 반응은 이와 다를 수 있다. 위의 장면은 하나의 예시일 뿐이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교육생이 주는 대사를 배우가 하도록 하여, 처음 보여준 장면과 다른 장면을 같이 만들어 가는 방식도 가능하다. 본 연구자가 제시한 연극대본은 교육자와 교육생의 상황에 따라 창조적 재구성을 위한 토대에 불과한 것이다.

### 3. ‘새로운 시작’을 위한 연극대본

연극을 활용한 또 하나의 대본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평화·통일 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남북이 공존할 때, 남북이 힘을 합할 때, 서로에게 유익이 있다는 점을 교육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북한 지역의 관광 가능성, 경제적 유익 등을 어떻게 쉽게 교육할 수 있을까? 남북의 미래를 상상하는 다음과 같은 연극대본은 어떨까? 남북의 사업가가 같이 차를 타고 개마고원으로 가는 도중에 벌어지는 일을 상상해보았다. 무대에는 자동차를 대신하는 테이블과 의자 2개, 극적 재미를 위해 소품으로 운전대 1개를 준비한다. 작은 소품 하나만으로도 교육생은 한층 재미있게 연극을 볼 수 있다. 무대의 뒤편에는 PPT를 띄워 장소가 바뀔 때마다 새로운 사진을 띄운다. 작은 변화이지만 이것으로도 교육생을 집중시킬 수 있다.

## 연극으로 미리 본 새로운 미래

### ① 개마고원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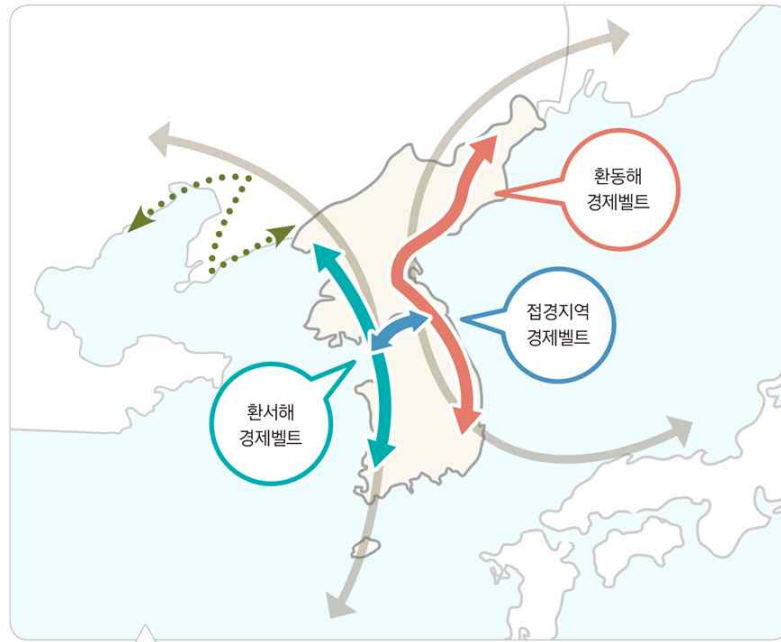
등장인물: 남이(남한 사업가), 북이(북한 사업가)

#### 1막

남이: 안녕하세요? 먼저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전 사업가입니다. 요즘 사는 게 참 힘든 거 아시죠? 참.. 고령화에, 출산을 저하에... 힘듭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살아야죠. 제가 딸린 식구가 얼마데요. 사업의 세계는 정글의 세계입니다. 먼저 블루 오션을 선점해야 정글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거죠. 전 블루 오션으로 여기에 눈을 돌렸습니다.

남북의 협력은 어느 한쪽을 위해서가 아닌, 자신을 위해서임을 연극 초반에 알려줄 필요 있음.

<무대배경은 교체 가능. 무대 배경은 미리 준비한 사진을 PPT로 띄운다>



이 철도가 1년 후에 모두 완공이 된다고 합니다. 될까, 될까 했는데, 되더라구요. 사업가인 제가 어떻게 이걸 놓칠 수 있습니까? 전 특히, 관광 사업에 눈독을 들이는데요, 이제 여행은 생활의 필수가 되었잖아요? 북한의 여행은 남한, 일본, 미국, 여하튼.. 누구나 한번쯤은 가보고 싶지 않겠어요? 대박날겁니다. 이 기회에 어떻게 해서든, 한몫 잡아보려구요. 그런

데 조건이 있더라구요. 관광지 탐색을 하려면 반드시 우리나라 여권과 북한 여권이 같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남북이 한조가 되어야 하는거죠.

**남북이 왜 같이 가야 하는지에 대한 개연성 있는 극적 설정이 필요함. 여권에 대해서는 상상일 뿐임.**

그래서 전 저랑 같이 갈 북한 친구를 한명 찾았습니다. 모임에서 알게 된 친군데, 뭐 그다지 친하지는 않고요, 그런데 배운 놈인지, 가끔 말끝마다 “무식하긴” 이러더라구요. 사실 제가 좀 못배웠거든요. 집이 가난했어요. 저 친구는 북에서 배운 놈 같아요...

**장면 후반에 있을 갈등이 작위적으로 보이지 않기 위해 남이에게 북이에 대한 불만이 이미 내재되어 있음을 암시함.**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업의 세계에서 가방끈은 중요하지 않죠. 돈이 중요하죠. 이 친구도 관광 사업을 하고 싶어하거든요.

북이: 네. 바로 접니다. 세상이 정말 빠르게 변하더라구요. 10년 전만 해도 이런 생각 별로 하지 못했는데, 이젠 모든 것이 합법화 되었습니다.

**교육생이 미래를 상상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함.**

북한에서 장사하는 거, 사업하는 거, 이젠 완전히 자유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세금만 내면 되니까요. 이전엔 북한에 중국 사람들만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1년 후에 철도가 이렇게 놓이면, 남한, 일본, 미국, 프랑스, 등등에서 한번쯤은 관광 오지 않을까요? 이걸 놓치면 안돼죠. 사실 저 혼자 다해 먹고 싶은데, 왜 남북이 1조를 이뤄야 사업 승인이 떨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요, 남쪽 애들 좋은 사람도 있지만, 자존심 상할 때가 많습니다. 지금 계속 남북 공연예술 교류 있었잖아요? 그런데 남측 사람들이 우리 공연을 보고 “촌스럽다”고 하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물론 일부 몇 명이 그랬어요. 그래도 화가 나더라구요. 아니, 우리가 뭐가 그렇게 촌스럽습니까? 그럼 남측은 뭐가 그렇게 세련됐습니까? 촌스러워도 애써 준비한 걸 보면, ‘멋있다’ 이래야 하는거 아닙니까? 사업은 사업이니 같이 가긴 하지만.. 여하튼 이번 여행에서 저놈이 저한테 촌스럽다는 말 한마디만 하면, 가만 안 둘겁니다.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요!

**장면 후반에 있을 갈등이 작위적으로 보이지 않기 위해 북이에게 남이에 대한 불만이 이미 내재되어 있음을 암시함.**

(남이를 향해) 준비 다 했어? 타. 같이 가보자.

남이: 좋아. 가자고.

(북이가 운전하고 남이는 노트북을 펼치고 본다.)

남이: 먼저 개마고원에 가보자. 관광지로 거기가 딱이야. 거기 안가볼 놈 있음 나와보라 그래. 너 개마고원에 대해 좀 아냐?

<무대-개마고원가는 길, 또는 개마고원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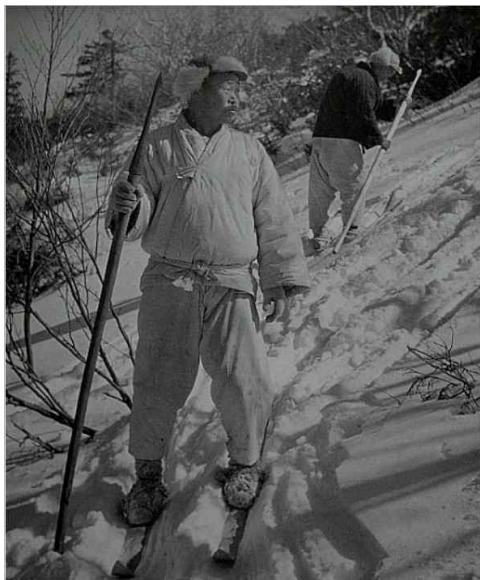
북이: 알지. 한반도의 지붕이라고 하잖나. 제일 높고 넓은 고원이다. 니네 전라남도 보다 더 커.  
알고 있었어?

남이: 그 정도야?

북이: 너 1930년대에 개마고원에서 화전민들이 스키탄거 아냐?

개마고원에 대한 설명을 강의식이 아니라, 배우들의 대사를 통해 자연스럽게 교육생에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함.

(무대 사진 변환다)



북이: 아, 지금 같은 스키는 아니야. 폴대도 그냥 짚대기 하나만이었으니까. 그래도 우리 조상들이 그걸 ‘썰매’라고 불렀다고 하든데..

남이: 와. 대단하다. 그런 일이 있었어? 아, 사진 찾았다. 대단하다. 스키타는 모습이 넘 멋진데.

작대기 하나로? 1930년대에? 그것도 화전민이!! 야! 개마고원에 이거 걸고 관광객 스키타게 하자. 겨울 상품으로 딱이다. 거기다 역사 공부까지 같이 하는 거야.

북이: 그거 좋네. 관광과 한반도 역사공부.

남이: 난 정말 이런거 몰랐는데, 너 별걸 다 안다.

북이: 뭐. 모르는게 오히려 무식한거지.

남이: ..... (천천히 북이를 찌려본다)

북이: 거기다 개마고원에는 남쪽에 없는 동물들이 정말 많아.

(무대배경-동물들 사진을 띄운다)



북이: 복작노루, 남한에서 고라니라 그런다며? 그리고 수리부엉이, 니들은 그거 천연기념물로 지정했는지? 그리고 산달, 아, 산달은 남한에선 먹이사슬 최상위라며? 개마고원에선 최상위 아니야.

남이: .....

북이: 삶도 그래. 남한에선 먹이사슬 최상위지만, 개마고원에서는 하위동물이야. 스라소니도 있어. 스라소니 남한에서 멸종됐다며? 생태공원 만들면 정말 딱이다. 개마고원이 전라남도보다 더 큰데 뭔들 못하겠어? 아... 목마르다. 미안하지만, 그 옆에 '과일단물'좀 줄래?

남이: ... 과일단물....? 아, 줘. 촌스럽게 과일단물이라니...

북이: .....(운전을 멈춘다)

북이: .... 촌스럽게?

남이: 그래. 그게 뭐.

북이: 넌, 뭐가 그렇게 안 촌스러워서?

**(북이는 차문을 열고 나가서 호흡을 한다. 앉아있던 남이도 따라 내린다)**

남이: 너 촌스럽다는 말이 그렇게 거슬리냐?

북이: 거슬린다.

남이: 그건 욕이 아니야.

북이: 니들 말할 때, 배려라는거 한번 해본 적 있냐? 그래. 촌스럽다고 느끼는거야 어쩔 수 없겠지. 그렇다고, 꼭 면전에서 그렇게 말해야 해? 지난번 우리가 공연하러 왔을 때, 니들 중에 우리 공연 보고 '촌스럽다'고 한 사람 있었어. 꼭 그렇게 말해야 하나고!

남이: 배려? 너 지금 배려라고 했냐? 넌 아까 나한테 뭐라 그랬어. 넌 아까 나한테 '무식하다'고 했어!!

북이: 내가 언제??

남이: 했어, 분명히 했어. 그래 나 못 배웠어. 집안이 가난해서. 중졸이다. 넌 뭘 얼마나 많이 배웠는데? 대학 나왔냐?? 가방끈 긴게 그렇게 자랑할 일이나, 이 짜식아!

북이: 뭐?? 짜식? 이 종갓나 새끼가!

남이: 뭐? 종갓나 새끼?? 이게 정말.

(남이와 북이는 서로 떡살을 잡고 때리려고 하다가, 떡살을 놓는다.)

북이: 내가 안하고 말지. 이렇게 까지 해야 해?

남이: 나도 때려칠 거야. 너 없어도 괜찮아!

북이: 북한 여권 없으면, 이 사업 팽이야!

남이: 너도 마찬가지야! 남한 여권 없으면, 너도 아무것도 못해!!

(남이와 북이는 따로 떨어져 바위에 앉는다.)

사회자: 잠깐 월까요? 아... 이걸 어찌죠? 아무래도 선생님들이 뭐라고 말씀 해주셔야 할 듯한데요. 선생님, 이 두 친구에게 뭐라고 말 좀 해주세요.

(교육생의 반응은 여러 가지 일수 있음.

예1) 갈등을 견디면, 개마고원에서 더 큰 유익을 볼 수 있다.

예2) 처음부터 사업이 목적이었으니, 쿨하게 다시 사업만 생각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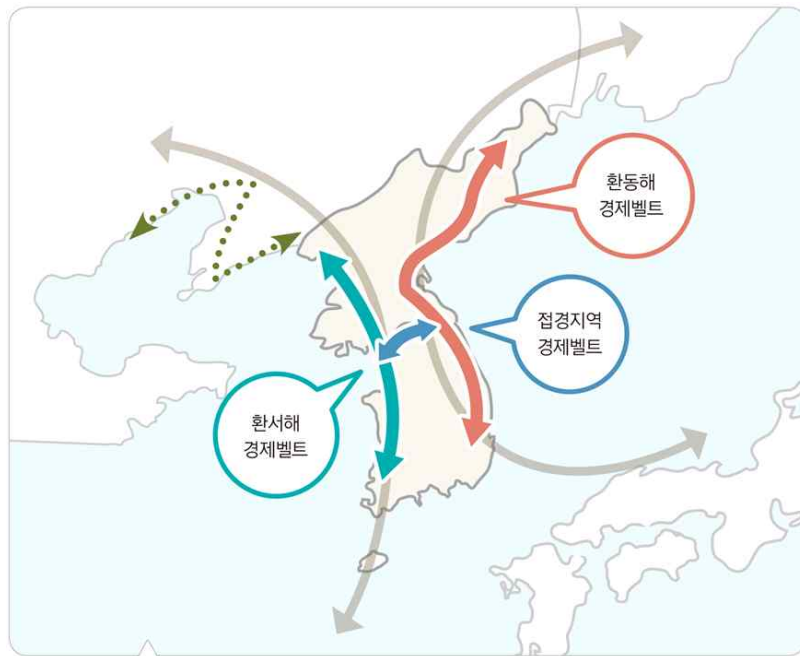
예3) 남자답게 서로 사과하고, 더 큰 목적만을 기억해라. 등등

사회자는 교육생의 의견을 모아 남이와 북이가 다시 여행을 하도록 유도함.

## 2막

남이와 북이는 다시 차를 타고 여행을 계속한다. 이번엔 남이가 운전한다.

무대사진



남이: 전라남도보다 더 큰 땅이야... 자연 생태공원, 스키장, 트래킹,

북이: 후우.... 그래.... 근데 난 호텔 막 짓는건 싫더라. 좀 자연친화적이면 좋겠어.

남이: 나도 그래. 야, 캠핑카 사업 어때?

북이: 거 좋네. 나 캐나다 가봤는데, 캠핑카 타고 여행하는 사람 많더라. 우리 이제 남북이 자유롭게 오가니까, 그 사업 딱이다.

남이: 완전, 완전. 도대체 사람들이 얼마나 관광하러 올까?

북이: 이 동해 쪽을 봐. 여기로 연결할 수 있는 인구가 무려 1억 5천만명이래.  
 남이: 우리 대한민국의 인구 3배네. 어마어마하다.  
 북이: 그렇지. 그럼 GDP 약 2조 달러 거대 경제권이 생기는 거야.  
 남이: 2조 달러면... 한국 돈으로 2222조??  
 북이: 어, 너 돈계산은 잘한다. 다른 건 잘 몰라도.  
 남이: .....(간신히 참는다...) 그래... 돈 계산을 좀 하지..  
 북이: 그리고 여기 왼쪽.. 여기로 연결할 수 인구가 얼마나 많아?  
 남이: 글썄. 나 모르겠는데?  
 북이: 생각 좀 해라. 머리는 생각하라고 있는 거야.  
 남이: ....(폭발 직전)  
 북이: 거기서 6억명이래. 파이가 더 커지지. 그래서 GDP는 6조 7천억 달러래. 한국 돈으로 7,000조인거야.

**경제적 정보를 강의식으로 교육생에게 주는 것보다 대사를 통해 주는 것이 보다 효과적임.**

남이: (간신히 화를 누르며) 그니까, 1년에 1억명만 온다고 해도.. 얼마를 쓰고 가는거야?  
 북이: 쓰고 가는게 아니라, 쓰고 가게 만들어야지. 머리를 써서.  
 남이: (운전을 멈춘다) 너 내려. 이 자식아.  
 (남이와 북이 내린다.)  
 남이: 너 아까부터 머리, 머리 이러는데, 그래 나 못 배웠어. 나 중졸이야. 넌 뭐가 잘났어, 이 촌스러운 새끼야.  
 북이: 뭐?  
 남이: 니가 입은 옷, 니가 신은 운동화, 니 얼굴. 정말 촌스러.  
 북이: 넌 뭐가 그렇게 잘났는데? 니 옷, 니 운동화는 뭐가 그렇게 잘나서? 정작 넌 머리에 듣게 없는데!  
**(남이가 달려들어 북이를 친다. 북이도 같이 싸운다. 사회자가 진정시키려 한다. 그러나 둘은 흥분을 가라앉히지 않는다.)**

남이: 그래. 나 머리에 든 게 없다. 우리 아버지 일찍 돌아가셨다. 우리 엄마가 우리 4남매 온갖 고생 다해서 기르셨어. 내 밑으로 동생이 셋이야. 내가 장남이다. 너 장남이 뭔지나 알아? 장남이 뭔지 아냐고? 난 대학은 꿈도 꿔본 적이 없어. 요즘 대한민국에서 대학 못가는 놈 없더라. 돈만 있으면 다 가더라. 하지만 난 못 갔어!! 돈을 벌어야 했으니까. 나 중학교 다니다가 학교 때려쳤다. 싸움질하고 나쁜 놈들하고 어울려 살았어. 우리 엄마 속 정말 많이 썩였어!! 그게 지금 너무너무 미안해서. 고생만하다 병든 우리 엄마 돌아가시기 전에 효도라는 거 한번 하려고, 그리고 내 동생들, 개들은 대학가야 하니까. 무식해도 어떻게 하나? 나 가족위해서 이길 나선거야! 내 가족 위해서 개마고원 가는거야! 무식해도 난 장남이니깐!!!  
 북이: 너만 장남이냐? 나도 장남이야. 내 밑으로 여동생만 둘이야. 우리 엄마, 자식 중에 나만 대학 보냈어. 돈이 없으니까. 나 장남이라고. 내 동생들? 오빠 학비 버느라고 개들 어릴 때부터 시장 나가서 장사한 애들이야! 그래도 한번 나한테 심통 부린 적 없어!! 눈 마주치면

웃기부터 한 애들이야. 나 혼자 대학다닐 때, 난 뭐 좋았는지 아냐? 동생들한테 미안하고, 미안하고, 미안했어!! 난 가방 끼고 다니고, 동생들 그 쪼끄만 어깨에 짊, 보리 지고 다니고. 내가 왜 개마고원 가는 줄 알아? 조국과 민족?? 아냐!! 동생들 으리번쩍하게 시집보내주려고!! 내가 오빠한테, 그건 해줘야 할 것 아냐? 개들 꽃다운 나이, 나한테 다 희생했는데, 개들 나 때문에 배우지도 못했는데, 지 남편한테 무시 당하지 않게 뭐라고 해줘야지. 난 장남인데!!!

남북이 다른 면도 있지만, 공통의 문화적 정서가 있음을 환기시키고자 함.

(남이와 북이는 떨어져 않는다. 둘 다 눈물을 흘린다. 한동안 침묵.... )

남이: .... 너... 동생들 때문에 마음 아팠겠다..

북이: .... 너... 어머니 때문에 마음 아팠겠다...

사회자가 교육생들에게 남이와 북이에게 어떤 말을 해달라고 요청한다. 교육생의 반응은 다양할 수 있음.

예1) 가족들을 생각해서 둘 다 참아라.

예2) 둘 다 장남이고, 그러니 서로 위로하면서, 가던 길을 가라.

예3) 머리 나쁜 거, 촌스러운 거 펼쳐질 사업에 비하면 별거 아니니 화해해라.

예3) 순간을 넘기면, 행복이 찾아온다.

예4) 2222조만 생각해라. 작은 일로 스키장, 트래킹, 생태공원을 포기하지 마라.

교육생의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남북의 갈등은 펼쳐질 미래에 비해 사소한 것이라는 결론이 자연스럽게 도출될 수 있음. 사회자는 이런 의견을 모두 모아 다시 남이와 북이가 개마고원으로 가게 함.

(남이와 북이는 다시 개마고원으로 간다)

남이: ... 나.. 엄마한테 한번이라도 잘해드리고 싶어...

북이: ... 나도 그래.. 동생들한테 잘해주고 싶어... 나 때문에 희생한 청춘이야 돌려주지 못하지만, 100세 시대라잖나. 나머지 인생을 잘해주고 싶다.

.....

북이: 니.. 어머니 언젠가 분이셨니..?

남이: 평범한.. 어머니지 머.. 자식위해 온갖 고생 다하고, 희생하고, 겨울철 내복도 못 입고, 시장에서 장사하신.. 겨울 바람에 뺨이 항상 얼어있던.. 그냥 평범한 엄마... 니 동생들은?

북이: 평범한 애들이지 머.. 이빨 것도 없고, 특별할 것도 없고.. 오빠위해 쌀 보리 지고 다니고, 파놓은 배추 놓고 고무줄하다 어머니한테 된통 혼나던... 그냥 평범한... 그런 애들..

(.....)

남이: ... 장남이라는 거 참 어렵지 않냐..? 난,, 어렵더라..  
 북이: ... 그래도 남쪽은 덜하지 않아? 북에서는 더 어려워.  
 남이: .... 힘내라. 어찌겠냐.  
 북이: 너도.. 힘내... 어머니 괜찮아지실꺼다...  
 (.....)  
 남이: 어! 저기! 저기가 개마공원 아니냐?  
 북이: 어! 맞아. 개마공원이야.

무대배경(개마고원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사진을 활용할 것)



( 남이와 북이 차에서 내린다. )



남이: 아.... 정말 넓다...  
 북이: 저기 저 하늘... 저거 달빛이지...?  
 남이: ... 장관이다... 여기가 동쪽, 여기가 서쪽... 북쪽... 남쪽... 우리 지금 켈 높은데 올라온거

지?

북이: 맞아. 저쪽을 넘어가면.. 만주야... 그리고 저쪽으로는 시베리아.. 저쪽에서.. 기차를 타면 유럽까지 가는 거야.

(.....남이와 북이는 벽찬 가슴으로 둘러본다. 팔을 벌려 숨을 들이마신다.)

남이: 난.. 머리가 나쁜데... 개마고원은 나를 탓하지 않네..

북이: 난.. 촌스러운데.. 나도 탓하지를 않네...

남이와 북이를 통해 현재의 갈등은 실상 펼쳐질 미래에 비하면 사소한 것임을 한번 더 교육생에게 환기시키는 것이 중요함.

(남이와 북이 웃으며 서로를 마주본다)

남이: 이제 우리 사업얘기 해볼까?

북이: 좋아. 우리 해보자!

(음악)

## End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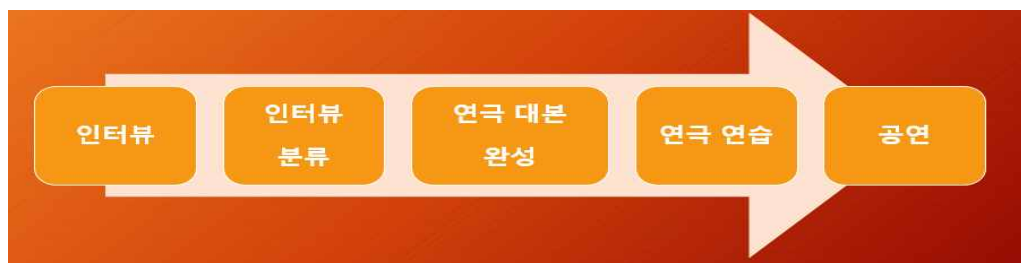
사회자는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들을 정리한다. 남북협력이 어떤 유익을 주고, 갈등 속에서도 극복해야 하는 이유를 교육생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마무리한다.

현장의 교육자는 이 대본 역시 모두를 적용할 필요가 없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이 대본의 한 장면만을 선택하여 교육생에게 적합하게 재구성할 수 있다.

## VI. 맺는 글

이와 같이 본 연구는 레비나스의 철학에 바탕을 두고 ‘참여와 소통의 평화·통일 교육의 방안’을 모색하였다. 북한 이탈주민과의 인터뷰로 시작해서 연극대본 완성까지의 이 과정을 정리해보기로 한다. 먼저, ‘남한에 정착해 생활할 때 겪는 가장 큰 어려움’과 어떤 내용이든 ‘하고 싶은 말 마음껏 하기’로 북한 이탈주민과 심층 대화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는 북한 이탈주민의 말을 판단하거나 중지시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교육자가 인터뷰를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북한 이탈주민의 생활이 담겨있는 글을 참고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정리된 글보다는 직접 인터뷰를 진행하기를 권한다. 본 연구는 1명의 북한 이탈주민에게 최소 5-7시간, 또는 1박 2일의 시간을 할애하여 인터뷰를 진행했다. 서로를 위해 요리하고 같이 먹고 자면서 남북의 벽은 허물어졌고, 북한 이탈주민은 자신뿐 아니라 주변 이

탈주민이 겪은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이 과정 자체가 남북이 평화와 통합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다. 다음 단계에서는 인터뷰 내용을 모두 종합하여 주제별로 재분류하는 것이다. 물론 하나의 사건이 하나의 주제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연극대본의 창작을 위해서는 분류가 필수적이다. 이 과정 역시 그 자체로 중요하다. 북한 이탈주민의 공통된 고충을 이해할 수 있고, 분류가 갈등을 드러내주기 때문이다. 다음 단계에서는 분류한 인터뷰 내용을 극적 갈등으로 엮으면서 연극대본을 창작하는 것이다. 연극은 갈등의 예술이기 때문에 반드시 갈등으로 엮어야 한다. 그러나 교육자가 연극대본 창작에 지나친 부담을 느낄 필요는 없다. 본문에서 제시했듯이 하나의 인터뷰만으로도 교육을 위한 대본창작은 충분하다. 다만 주의할 것은 지나치게 첨예한 갈등을 설정하지 않는 것이다. 지나치게 날카로운 갈등은 교육의 효과를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다. 다음 단계는 교육자와 교육생이 완성된 대본을 바탕으로 연극연습을 하는 것이다. 연극연습에는 필연적으로 인물의 분노, 서러움, 안타까움 등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 남북의 통합, 이를 위한 평화·통일교육은 이성과 감성 모두에서 접근되어야 하므로 이 과정은 중요하다. 연극을 연습한다는 것은 이성과 감성을 모두를 체험한다는 의미이므로, 타자에 대한 이해가 전면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부언하면, 이와 같은 창작으로 경험을 쌓은 이후에는, 평화·통일 교육에서 ‘경제적 유익’과 같이 다소 지루할 수 있는 과목을 연극으로 구성해보기를 권한다. 이때에도 개연성 있는 갈등은 필수적이며 경제적 유익을 배우의 대사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연극대본을 완성한 이후 15회에 걸쳐 남측 청년 3명, 이탈주민 1명으로 구성된 2조의 배우들과 연습을 진행하였다. 남측 배우들은 평소 북한이나 통일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지 않은 평범한 청년들이었다. 처음 연습에서 남측 배우들은 배우로만 연습에 임했다. 그런데 5회 이상 연습이 진행되면서, 배우들은 대본을 토대로 북한 이탈주민의 상황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으며, 7-8회가 지나면서 북한과 통일에 대해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본 연구자에게 많은 질문을 했다. 이것이 바로 교육연극의 힘이 아닐까. 교육연극은 교육생만을 위한 교육방법이 아니다. 교사와 강사를 비롯해 교육에 참여하는 사람 모두를 변하게 하는 교육방법인 것이다. 따라서 초등학교에서부터 대학교까지, 특히 학교통일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이 조별로 나누어 연습하고 공연한다면, 그 과정에서 학생들 스스로 변할 수 있으며, 그 자체

가 참여와 소통의 평화·통일교육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본 연구가 제시하는 평화·통일교육의 방안은 수많은 방법 중의 하나일 뿐이며, 소박하고 기초적인 단계일 뿐이다. 현장 교육자들에 의해 수정·보완되어 보다 발전적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김홍석. 『퍼포먼스, 윤리적 정치성』. 서울: 현실문화, 2011.
- 루츠 무스너, 하이데말리 울 편. 문화학연구회 옮김. 『문화학과 퍼포먼스』. 서울: 유로, 2009.
- 리처드 코트니. 김주연·오판진 역. 『교육연극 입문』. 서울: 연극과 인간, 2014.
- 마달레나 드 카를로. 장한업 옮김. 『상호문화 이해하기』. 서울: 한울 아카데미, 2011.
- 마르틴 압달라-프렛세이 지음. 장한업 옮김. 『유럽의 상호문화교육』. 서울: 한울 아카데미, 2017.
- 문성원. 『타자와 욕망』. 서울: 연암사, 2018.
- 알랭 펑켈크르트. 『사랑의 지혜』. 서울: 동문선 현대신서 14, 1998.
- 엄태동. 『존 듀이의 경험과 교육』. 서울: 원미사, 2001.
- 자크 데리다. 『환대에 대하여』. 서울: 동문선 현대신서, 2004.
- 정성희. 『교육연극의 이해』. 서울: 연극과 인간, 2006..
- 존 소렐·폴 로버츠·대런 헨리. 오수원 옮김. 『문화예술교육은 왜 중요한가』. 서울: 열린책들, 2016.
- 질 베르분트 지. 장한업 역. 『상호문화사회』. 서울: 교육과학사, 2012.
- 최지영. 『드라마 스펙리스트가 되자』. 서울: 연극과 인간, 2007.
- 콜린 데이비스. 주완식 옮김. 『처음 읽는 레비나스』. 서울: 동녘, 2014.
- 통일연구원. 『통일교육 콘텐츠 개발Ⅳ(2)』. 서울: 통일연구원, 2014.
- 김민수·이정은·김미혜. “통일과 평화를 위한 문화예술 교과목 <북한의 일상과 문화예술> 개발 연구.” 『통일과 평화』 제9집 2호(2017).
- 윤철기. “한반도의 평화문제와 통일교육의 새로운 방향의 모색.” 『정치정보연구』 제20호 (2017).
- 이기범. “다원화시대의 공동선 모색을 위한 평화교육과 덕윤리.” 『다문화사회연구』 제10집 2호(2017).
- 박보영. “평화교육의 이론과 과제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학과 박사학위논문(2006).
- Bloom, H.(Ed.). *Bloom's modern critical views: Homer* (updated edition). New York: Chelsea House, 2007.
- Bolton, G. 『교실연기란 무엇인가?』. 김주연, 오판진 역. 서울: 연극과 인간, 1998.
- Caillouis, R. 『놀이와 인간』. 이상률 역. 서울: 문예출판사, 1967)
- Courtney, R. *Play, drama and thought*. (4th ed.). London: Cassel and Company Ltd, 1989.
- Freire, P. *Pedagogy of the oppressed*. (M. B. Ramos, Trans.). New York: Continuum, 1999.
- Greene, M. *Variations on a blue guitar: The Lincoln center institute lectures on aesthetic education*. New York: Teachers College Press, 2001.
- Heathcote, D. *Improvisations*. In L. Johnson & C. O'Neill (Eds.), *Collected writings on*

- education and drama*, Evanston, Illinois: Northwestern University Press, 1984.
- Heathcote, D., & Bolton, G. *Drama for learning*. Portsmouth, NH: Heinemann, 1995.
- Heinig, R. B. *Creative drama for the classroom teacher. Englewood Cliffs*: Prentice Hall. 1993.
- Hesiod. *The works of Hesiod and the Homeric hymns*. (Hine, D. trans.)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5..
- McCaslin, N. *Creative drama in the classroom and beyond*. (7th ed.). New York: Longman. 2000.
- O'Neill, C. *Drama worlds: a framework for process drama*. Portsmouth, NH: Heinemann. 1995.
- Popovich, J. E. *Development of creative dramatics in the United States*. In G. B. Siks & H. B. 1961.
- Pratt, L.H. Aletheia and Poetry. in Bloom, H.(Ed.), *Bloom's modern critical views: Homer* (updated edition). New York: Chelsea House, 2007.
- Slade, P. *Child drama. London*: University of London Press, 1954.
- Somers, J. *Making the case for drama*. Theatre/Drama, 2012.
- Suwan, El-Shamy. 『쉽게 배우는 역할극』. 이호선 역. 서울: 학지사, 2009.
- Taylor, P. 『시민연극』. 김병주 역. 서울: 청동거울, 2003.
- Thompson, J. *Applied Theatre*. London: Peter Lang. 2003.
- Wagner, B. J. *Dorothy Heathcote: Drama as a learning medium*. Washington, DC: National Education Association. 1976.
- Ward, W. *Creative dramatics*. New York: Appleton-Century. 1930.
- Way, B. *Development through drama*. London: Longman. 1967.

북한 이탈주민 5명 인터뷰. 2018년 2월~3월.

남북한 배우 8명. 2018년 4월~7월.

영화 <흐르는 강물처럼>. 1992.